

<제10회 전주학 학술대회>

전주정신 대토론회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14:00~17:30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전주역사박물관·전주학추진위원회·전주시

학/ 술/ 대/ 회/ 일/ 정

□ 등록 및 접수(13:30~14:00)

13:30~14:00 등록 및 접수

□ 개회식(14:00~14:20)

진행 / 고규진(호남사회연구회 회장)

개회사 ||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축사 || 송하진(전주시장)

조지훈(전주시의회 부의장)

□ 학술대회(14:20~15:20)

기조발제 _ 전주, 전주인, 전주정신 || 장명수(전북대학교 명예 교수)

주제발표 _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향 ||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

□ 휴식(15:20~15:30)

휴식

□ 종합토론(15:30~17:30)

좌장 / 이정덕(전북대학교 교수)

고언기(전주시 전통문화국장), 김남규(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기현(전북대학교 교수), 소순열(전북대학교 교수), 송화섭(전주대학교 교수)

이상균(전주대학교 교수), 이태영(전북대학교 교수), 조범중(우석대학교 교수)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관장), 이종민(전주문화재단 운영위원장)

목 / 차

■ 기조발제

전주, 전주인, 전주정신 _ 장명수	9
---------------------------	---

■ 주제발표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_ 홍성덕	25
-------------------------------	----

■ 종합토론

전주정신의 정체성 _ 김기현	43
이야기가 흐르는 전주학 _ 김남규	47
사회경제사로 본 전주정신 _ 소순열	52
전주정신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_ 송화섭	61
전주정신, 넉넉함과 포용력 _ 이동희	66
전주정신의 근원은 _ 이상균	70
음식과 소리, 그리고 한옥마을을 통해 본 전주정신 _ 이종민	77
理想세계,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정신 _ 이태영	83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 체험·교육도시 전주 _ 조법중	89

기조발제

전주, 전주인, 전주정신

장 명 수*

<목 차>

- I. 전주정신은 있었는가?
- II. 각국의 국민정신
- III. 한국인의 정신

- IV. 전주정신의 형성과정
- V. 결론-전주정신의 진수

I. 전주정신은 있었는가?

사람에게는 사고나 감정을 다스리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정신이 똑바르면 모든 일의 진행이 올바르게 맺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일이 어그러지게 된다. 정신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나 지역, 국가에도 있어 왔다.

학교와 같은 집단의 경우 건학이념에 알맞은 학교 정신을 교훈으로 내걸고 면학에 힘쓰게 한다. 사회의 민간단체에서도 단체정신을 내세워 단결을 도모하기도 한다. 지역 단위로 볼 때도 각 지역 마다 대표되는 지역정신이 있어 발전의 신봉으로 삼기도 하였다.

군대 집단의 군인 정신은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애국정신이라 할 수 있다. 군인정신은 국방력을 좌우하는 기본일 뿐 아니라 국가 정신의 표상이기도 하였다.

국가인 경우 국민은 국가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국가 정신이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연면하게 흘러왔다. 국가정신이 잘 지켜질 때는 흥하지만 잘 못 지켜지면 망할 수도 있고 흥망성쇠의 근원이 되어 오기도 하였다.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이런 경과로 볼 때 한민족이 살고 있는 한국에도 국민정신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인 전라도에는 전라정신이 있었고 전주에도 전주정신이 있어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민정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뜻 집어 내기가 힘들다. 하물며 전라인 정신은 무엇이며 전주정신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이 금방 나오질 않는 현실이다.

하지만 집약이 안되어서 그렇지 생활 속에 분명히 한국과 전라도와 전주 정신이 있어 왔다.

한국인의 정신에 대해서는 규명되고 확립되어 온 몇 가지 보편적 정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도나 전주 정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 것 같다. 막연하지만 실마리는 있기 마련이어서 차제에 전주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부를 해 보려고 한다.

전주 정신에 대한 기존의 여러 설들을 집약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전주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각 국의 국민정신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정신과 한국인의 정신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공통정신이 있다. 선진국일수록 합리적이고 본 받아야 할 정신이 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신은 그 나라의 풍토에서 생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만 적합한 것이 있는가 하면 딴 나라가 본 받아도 손색이 없는 정신도 있다.

맨 먼저 합리주의 근대 국가를 일찍 건국한 유럽과 신생국가 미국, 이웃 일본 등의 국민정신을 고찰하려고 한다.

1. 유럽의 기사도 정신

서유럽, 중세의 봉건 제도의 꽃이라 불린 기사들 사이에 성립한 규범의식 또는 행동양식에서 기사도정신이 있어왔다. 봉건제도 전성기인 11세기에 발생하여 12~13세기에 꽃피우고 14~15세기에 퇴색해갔다.

기사도의 덕목은 용기·성실·명예·예의·경건·겸양·약자보호 등이었다. 이 덕목은 유럽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십자군 운동에 이바지 하였다. 근세에 와서는 유럽의 정의 사회와 자본주의 성숙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기사도는 지금도 유럽인의 정신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신사도도 기사도에서 유래하였거니와 영국이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세계를 지배할 때 국가 경영을 뒷받침한 것이 신사도정신(젠틀맨십) 이었다.

2. 미국의 개척정신

신대륙 발견 이후 미국은 유럽 이민들이 동부를 먼저 개척하고 워싱턴, 뉴욕 등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 후 서부의 황무지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진취적인 행동 등을 미국의 개척정신이라 하고 있다.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역센 정신을 프런티어 정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퓨리터니즘과 더불어 미국 민주주의의 2대 요소가 되어 미국의 국가적 특성과 국민성을 만들어 내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또 한번 뉴 프런티어 정신을 불러일으키어 미국의 발전에 기여 하였다. 개척정신이야 말로 미국을 건국하였고 강대국을 만들었으며 세계 경영을 하는 일대 원천이라 할 수 있다.

3. 일본의 야마도 다마시(大和魂)

일본이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부르짖으며 명치유신을 단행하였다. 서양적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였고 국민정신을 계발 형성하여야만 했다. 그것이 야마도 다마시였다. 야마도는 일본의 옛 땅 이름이었고 민족 고유의 정신을 야마도 다마시라 하였다.

야마도 다마시란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정신이다. 무사도에서는 다이묘(영주)에게 충성을 다하였으나 명치유신 이후에 충성심은 천황으로 전환하였고 청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야마도 다마시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 갔다.

무엇이던 하면 된다는 야마도 정신은 점차 군국주의로 흘렀고 무모한 2차 대전을 일으키어 나라가 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패전 후 야마도 다마시를 다시 불러 세워 오늘의 부유한 일본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III. 한국인의 정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에 고유 정신이 있기 마련이었다. 더구나 단일민족이 살아오고 있던 외적의 침입이 거듭하는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정의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민족정신은 분명히 있어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한국정신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이다라고 선뜻 내 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회자 거론되었던 국민정신을 차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고시대의 홍익정신, 신라시대의 화랑정신, 고려시대의 불교정신, 거란과 여진의 격퇴정신, 대몽항쟁정신,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동학농민혁명정신, 일제강점기의 3·1 정신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보편 타당성이 있는 국민정신을 주관적으로 추출한다면 홍익정신, 화랑정신, 선비정신으로 압축할 수 있다. 차례로 고찰해 보기로 하자

1. 홍익정신

1948년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되면서 한국의 건국이념을 제정한 바가 있었다. 바로 홍익정신이었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서 헌법과 각종 제도를 만드는데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본받아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의 골격을 조성한 것이다.

홍익정신이란 개인의 발전도 도모하지만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하고 도와주려는 정신이다. 현대 국가에 비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하려는 기본법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익정신이란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 기록과 『제왕운기』, 『규원사화』 등에서 유래된 것이다. 1948년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할 무렵에 4천년 이전의 건국이념인 홍익정신을 소급하여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격변을 겪으면서 시대상이 변함에 따라 홍익정신이라는 국민정신이 퇴색하여 지금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희미해 진 상태에 놓여 있다.

2. 화랑정신

화랑정신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라의 무사도이며 신라 통일정신이었다. 화

랑오계를 보면 임금에 충성, 부모에 효도, 벼를 밟고,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살생을 가려서 하라는 등의 무사의 신조였다.

화랑은 창설로부터 삼국통일이 완성된 문무왕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 융성하였다. 삼국통일의 어려운 시기에는 강한 무사도정신으로 나타나 삼국통일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신라가 망한 후에도 그 정신은 소멸되지 않고 고려와 조선에 면면히 내려와 국난을 맞을 때마다 의병 등의 위기로 치솟아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일부 계승되기도 하였다.

다만 3국 통일의 타도 대상이 되었던 백제나 고구려인의 입장에서 보면 화랑정신을 결코 찬양할 수 만은 없었을 것이다.

3. 선비정신

선비정신이란 나라가 위급할 때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애국정신을 말한다. 왕조 시대 시책에 큰 오류가 있을 때는 임금께 상소를 올려 목숨을 걸고 시정시키는 것도 선비정신의 하나였다.

또한 국란이 닥칠 때는 의병을 일으키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구한 것도 선비정신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진왜란 때의 의병과 구한말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일어난 의병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왜적이 침략을 감행 했을 때 관군이 당연히 방어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왜적은 파죽지세로 북상을 했고 관군은 패전을 거듭하였다.

정부는 병력 보충을 위해 모병을 했지만 응하지 않던 백성들이 선비가 앞장 선 의병에는 무기를 들고 일어났다. 선비 의병장을 중심으로 대개 지방에 사는 양반, 중인, 노비 등이 의병에 가담하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의병장은 대체로 그 지방에서 명망 높은 시골 선비였다.

그 중에서도 고경명, 곽재우, 조헌, 김천일, 정문채 같은 선비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임진왜란의 승리는 사실상 충성스러운 의병의 큰 역할이 있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19세기 말엽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었을 때도 선비들이 일어나 의병을 일으켰다. 순창에서 최익현 · 임병찬, 홍성에서 민중식, 경상도에서 신돌석 등이 활약하였다. 1907년 일제가 구한말 군대를 해산하자 한말 군대는 지방의 의병과 합세하여 더욱 조직적인 항

일 투쟁을 전개 한 바 있었다.

의병들의 항쟁사를 보면 1907년부터 1901년 까지 의병이 일본군과 교전한 횟수가 2,852 회 이고 연 인원수는 141,818명 이었으며 희생당한 의병은 17,6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선비정신에 대한 정다산의 혹평도 있었다. 문약에 홀려 일을 천시하고 백성을 멸시하며 가난이 영광인 것처럼 굶주렸다는 평이다.

더구나 선비란 소수의 양반계층 이었으므로 보편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선비정신이 국가발전에 공헌했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IV. 전주정신의 형성 과정

1. 전라도와 전주의 관계설정

지금까지 한국의 국민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해 봤다. 그렇다면 한국 속의 전라도 나뉠대로의 정신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전라도 속에 좁은 행정구역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를 떠나서 전주정신을 독자적으로 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는 좁은 도시일지언정 독립된 국가였기 때문에 아테네 정신, 스파르타 정신을 논할 수 있었지만 전주를 도시국가에 비교하여 '전주정신이 이것이다' 라고 내놓기가 어려운 입지에 속하고 있다.

전주의 경우는 전라도 정신 속에 전주정신인가? 아니면 전라도 정신과는 관계없이 전주만의 정신인가 구분하기가 모호하였다.

따라서 전라정신이 전주정신일 수 있고 전주정신이 전라정신일 수 있을 만큼 불가분의 관계와 공존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분명히 전주정신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훈요 10조를 비롯하여 정여립 모반사건으로 전라도와 전주가 심한 박해를 받아 왔음에도 국난 때 마다 난국 돌파를 위한 저항적 전주정신이 발휘되어 나라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또한 오늘날의 전통문화도시답게 문화 창조를 위한 지혜를 발휘하는 전주정신도 있어왔다.

먼저 전주정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살피고 그 속에서 전주정신의 진수를 추출하기로 하자.

2. 임진왜란의 구국항쟁

1) 전라도는 의병과 식량의 공급기지

1592년 왜군이 부산진 앞 바다에 쳐들어와 7년간의 임진전쟁이 시작되었다. 개전 3개월에 수도 뿐 아니라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 7도가 왜적의 수중에 들어가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임란 중 7년간 전라도를 왜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임란초기 관군과 의병의 연합체가 웅치의 혈전과 황진의 안덕원 전투, 고경명의 금산성전투, 권율의 이치전투를 통해서 왜군의 예봉을 꺾었기 때문에 호남을 지켜낼 수 있었다.

호남방어는 임진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국가 보존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순신도 ‘호남이 없으면 나라는 없다’ 라고 까지 극찬을 하였다. 호남이 국가 보존의 역할을 한 대목을 짚어 본다.

첫째 호남은 곡창이다. 전쟁의 군비와 군량을 지원했다.

둘째 호남의 인력이 관군과 의병의 공급원이 되었다.

셋째 근왕병이 모두 호남인이었다.

넷째 육전에서 행주대첩, 진주성전투 등과 해전에서 한산도대첩, 노량해전 등 경기도 이남의 크고 작은 전투들이 모두 전라도 젊은이들이 주동이 되어 수행한 전투였다. 호남은 의병·관군, 식량을 공급하여 나라를 구한 고장이었다.

2) 전주성 사수

왜적이 진안으로부터 전주로 행하자 전주성내는 물 끓듯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할 때 이정란이 앞장 서 끝내 전주성을 지켜냈다. 적이 왔다고 하니까 관리들이 도주하려는 것을 이정란이 앞장 서 성민과 관리 들을 지도 감독하고 독전하였다.

낮에는 많은 기치와 연막으로 군세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성 밖에는 허수아비 군대를 세워 세를 과시하였다. 밤에는 횃불을 인근 산과 성 부근을 훤히 밝혔다.

왜적은 성 밑까지 도착하여 주위를 여러 번 살폈으나 살기등등한 성 내외를 보고 공격을 감히 하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적은 이미 웅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의기가 상실 된 상태이기도 하였지만 이정란의 용감한 방어 정신과 지모, 성민들의 임전 태세가 확고한 것을 알고 퇴각한 것이다.

전주를 지킨 거룩한 이정란의 향토방어정신은 국란이 끝난 후 충경(忠景)의 시호가 내려지는 영광이 있었다.

3) 왕조실록과 어진 이안

조선 왕정에서 왕조실록 등을 보관하던 사고가 4개소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3개소의 사고가 불타 버리고 전주사고에 있었던 실록만이 보존되어 방대하고 주옥같은 역사서를 보유하는 민족의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임란이 벌어지고 전라도에도 위기감이 감도는 속에서 태조 영정과 조선왕조실록을 보존 하려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안의, 손홍록과 경기전 참봉 오희길과 유인, 삼례찰방 윤길, 전라도 도사 최철견, 무인 김홍무 등과 가솔과 가동 30여명과 내장산에서 스님 희묵과 재인 100여명, 내장산에서 아산으로 이안할 때는 정읍 현감 유탁, 참봉 구정려 등이 적극 협력한 사람들이다.

삼례 찰방이 끌고 온 삼례역 말 100여 필이 40~50개의 짐을 싣고 엄중한 호위 속에서 경기전을 떠나 1차 정읍 내장산 용굴암, 2차 아산, 3차 강화, 4차 묘향산 보현사 등에 이안하여 왕조실록과 어진을 전화에서 보존하게 된 것이다.

전란 속에서 개인의 안위도 어렵거니와 국가 존망이 불투명한 위기의 순간에서 문화와 역사를 지켜 낸 것은 크게는 전라인 작게는 전주정신의 발로였다 할 것이다.

3. 동학혁명정신의 발원지

1894년 고부에서 일어났던 농민 봉기는 역사상 최대의 민중항쟁이었으며 초유의 농민 혁명이었다.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의 진원지가 내 고장이었다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한 후 농민통치기관이며 민정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한국사상 최초의 민중의 자치기관이 탄생되었고 각 고을의 행정권을 장악 하였다는 사실이다.

혁명군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의 협의 하에서 전주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전봉준이 전라우도, 남원의 대도소는 김개남이 전라좌도를 지휘하였다.

집강소에서 공포한 개혁 요강 12개 조항에는 ①탐관오리 징벌 ②노비해방 ③재가 허용

④인재 등용에서 지별 타파 등이 골자이다. 신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혁명적 개혁이었다.

5월 8일부터 9월 12일 까지 짧은 시기에 불과했으나 전주에서 나타난 봉건제도 타파, 신분적 차별 폐지, 외세 배격 등의 선언이 있었고 집강소에서 동학혁명 정신이 발현된 것이다.

4. 대사습 놀이의 풍류

판소리는 광대의 소리와 대사를 통틀어 일컫는 극가이다. 오늘날에는 세계에 자랑하는 한국 노래이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다.

판소리의 발상지는 전라도이며 대사는 거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구성되어 있다. 판소리가 조선 숙종 무렵부터 불려지고 있었긴 하지만 육성되고 보급 되는 데는 전주대사습놀이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 후기에 전주부의 통인들과 전라 감영의 통인들이 경쟁적으로 유명하다는 소리 광대를 초대하여 대사습놀이를 펼쳤다. 이 때 관중이 많고 적음으로 일종의 권위에 대한 우열을 가렸던 것 같다.

때로는 경쟁이 과잉되어 통인들과 관중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거나 심하면 투석전이 벌어지는 일 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대사습을 개최케 하기도 하였다. 대사습놀이는 동짓날 팔 축제를 지낸 음식을 먹는 재미에서 시작된다. 통인청 앞마당에 등불을 흰히 밝히고 숯불을 피워 추위를 막아가며 진행하였다. 줄타기와 땅재주를 선보이고 소리판을 벌렸던 전주만의 동지 풍속이었고 풍류였다.

대사습의 시작과 단절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대체적으로 19세기 중엽부터 1910년 치욕적 한일합방 직전까지 존속되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V. 결론 - 전주정신의 진수

1. 저항과 풍류정신

전주정신이 무엇인가를 추출하기 위한 전주정신의 형성과정을 분석해 봤다. 그것은 외적의 침입에 저항하고 왕정의 폭정에 저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역향으로 몰렸던 전라도의 한에서 발생한 판소리를 대사습놀이의 풍류잔치로 만들었다. 덧붙여 동쪽

산야와 서쪽 해안에서 산출되는 산해진미로 전주음식을 맛 풍류로 형성하였다.

그 결과 전주정신은 『저항과 풍류』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저항정신에는 구국정신, 향토방위정신, 동학정신이 있었다. 풍류정신은 문화창조정신이라고 구분할 수 있었다.

추출된 전주정신을 저항과 풍류로 나누어 미시적 설명을 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2. 저항 정신에서

1) 구국정신 - 의병이 왜적을 막고 전라도를 보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크고 많은 침략을 당하였고 그 때 마다 구국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나라를 지켜왔다. 임진왜란의 전화 속에서도 범국가적으로 애국정신이 발휘되어 적을 물리쳤다. 관군이 싸웠지만 나약하기 짝이 없었고 오히려 의병들이 큰 성과를 거두어서 임진왜란 극복은 의병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상이었다.

의병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나 전라도 의병이 초전부터 쫓기하여 왜적의 전라도 진격노선의 길목인 웅치와 이치고개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타격을 가하였다. 왜적은 호남평야의 군량미 확보를 위해서 전라도 진격을 획책했으나 사전에 차단되어 버렸다. 그 결과 전라도를 보전시켜 3년 전쟁의 병력과 군량미 지원의 역할을 다 하게 된 것이다.

2) 향토방위정신 - 이정란과 주민이 전주성을 사수하였다.

웅치 전투에서 장병들은 옥쇄했고 왜적은 조선왕조이 본향인 전주성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의병장 이정란의 탁월한 지모와 전략으로 전주성을 지켜냈다.

전주는 호남의 근본이 되는 땅일 뿐 아니라 조선왕조의 발상지였다. 왜적은 왕조의 정신적 기반을 와해시키려고 전주성 공격을 시도 했으나 성내외의 물샐 틈 없는 방어태세에 퇴각하고 말았다.

기실 전주의 군졸은 이미 강화에 가 있는 실정이라 성내는 방어할 군사가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이정란이 모은 의병은 겨우 700여명에 불과 하였다. 객사 문 밖에 장대를 쌓고 성을 순찰하는 한편 기치와 연막 등으로 군세를 과시하고 햇불로 기세를 돋우자 성 밖까지 왔던 왜적이 퇴각하고 말았다.

이정란의 지모와 성내의 장정들이 스스로 자기 고장을 지켜낸 위대한 향토 방위였다. 또 하나의 충성과 문화재 보호는 전화 속에서 전주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유일

하게 보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풍전등화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안의, 손홍록, 윤길, 오희길 등의 시골 선비가 왕조실록을 말에 싣고 정읍, 아산, 해주 등 기나긴 여정을 견디며 보존한 것이다. 실로 자기 고장의 문화재를 지켜낸 위대한 향토방위 정신이었다.

3) 동학혁명정신 - 집강소 설치로 주민자치 구현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은 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였다.

전라감사 김학진은 전봉준과 회담 끝에 정부와 농민군이 협력하여 전라도내의 안정과 치안질서를 바로잡기로 하였다. 그 결과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농민군의 자치를 인정하여 만들어진 기구였다. 전주성 안에 대도소를 설치하는 한편 각 군현에 통문을 보내 집강을 두도록 하였다.

집강소의 설치 운영은 전라도에 극한된 것이었고 또 일시적인 조치였긴 하지만 집강소는 농민들 자신의 힘과 의지로 지방 단위에서 행정력을 장악한 자치기구였다.

집강소가 전주에서 출발되었고 최초의 자치기구였으니 동학혁명의 꽃이었고 전주에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동학혁명정신이 구현된 것이었다.

3. 풍류정신에서 - 문화창조 정신의 발로

1) 판소리는 민중의 풍류

판소리의 발상지는 전라도이며 대사는 거의 전라도 사투리로 구성되어 있다. 판소리가 조선 숙종 무렵부터 불리어 내려오긴 하였으나 육성 보급에는 전주 대사습놀이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후기에 전주부와 전라감영의 통인들이 동짓날 통인청 앞마당에 불을 밝히고 유명 광대를 초대하여 소리판을 벌렸다. 먼저 줄타기와 땅재주를 넘는 여흥 끝에 판소리가 등장 하였다.

구경거리가 별로 없던 당시에 대사습놀이는 일대 장관이었다. 걸걸하고 애절한 판소리가 한마당 벌어지면 추임새 열씨구를 외치고 또 한 곡이 끝나면 더 부르라고 무릎을 탁 치며 “이어!”를 연발하는 열기 가득 찬 관중의 물결을 상상해 보라. 전주만의 풍류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처음에는 서민들만 즐긴 판소리였으나 점차 사대부들도 잔치에는 소리판을 벌렸고 왕실에서도 소리 광대를 초대하는 등 전주의 풍류는 한국의 풍류가 된 것이었다.

2) 곰삭은 맛 고장

전주하면 음식과 소리의 고장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맛과 멋과 흥의 고장이라 하고 있다. 맛의 기본인 한식은 한류의 한 부분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또한 전주비빔밥과 콩나물 국밥은 어디에서든 전주라는 관명사가 붙는 전주 브랜드 음식이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전주성내에서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전주 여성들의 음식 솜씨와 곰삭은 음식 맛을 즐겼던 전주인은 문화 창조적이었다 아니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통인청에서 울려 퍼진 멋스런 판소리, 곰삭은 음식 맛 등은 전주에서 발생한 자생적이고 문화창조적인 소산이었다.

높은 문화를 만들어 낸 창조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판소리와 음식맛이 전주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국란 때 마다 대외적으로 맞서 저항을 하면서도 문화창조를 감행한 『저항과 풍류』가 전주정신이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익두, 『판소리, 그 지고의 신체 전략』, 평민사, 2003.
- 김화성, 『전주에서 놀다』, 고즈윈, 2009.
- 류성룡, 『朴鍾鳴 訳註』, 東洋文庫, 1990.
- 송영상, 『全州川邊』, 全州文化院, 1995.
- 신정일, 『지워진 이름 정여립』, 가람기획, 2000.
- 윤홍길, 『전주이야기』, 신아출판사, 1999.
- 이기백, 『韓國史新論』, 一潮閣.
- 이서행, 『한국 한국인 한국정신』, 대광서림, 1984.
- 이철수, 『全州野史』, 전주출판사, 1967.
- 이희권, 『역사로보는 전라도』, 신아출판사, 2005.
- 『여립이여, 그대정말 모반자였나』, 신아출판사, 2006.
- 전라문화연구소, 『임진왜란 응치전투와 그 전적지』, 선명, 2006.
- 전주부, 『全州府史』, 선광인쇄주식회사, 1943.
- 전주시, 『아하! 그렇군요』, 전주시, 2007.
- 『우리고장 全州』, 대흥정판사, 1982.
- 정 양, 『판소리 더늠의 시학』, 문학동네, 2001.
- 조병희, 『完山高을의 脈搏』, 新亞出版社, 2001.
- 최기성,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연구』, 서경문화사, 2002.
- 황미연, 『판소리』, 유네스코연맹 전북협회, 2002.

주제발표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홍 성 덕*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전주' 정체성과 도시이미지 |
| II. '전주' 연구실태와 문제점 | 1. 전주 이미지의 변화 |
| 1. '전주' 연구의 흐름 | 2. 전주 인식과 가치 충돌 |
| 2. '전주' 연구 현황 | IV. '전주정신'의 정립 방향 |
| 3. '전주' 연구 현황 | V. 맺음말 |

I. 머리말

‘전주정신’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개념적 정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공간적 개념과 ‘정신’에 대한 상호 인지의 문제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정신’을 정립함에 있어 시대적·공간적 범주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후 특히 1935년 완주군의 분립이후 초래된 전통적 공간성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인위적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수백년에 걸친 공간적 개념의 축소가 강제된 상황 속에서 ‘전주정신’을 현재의 전주만의 공간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의 상호인지는 어떻게 무엇을 나타내고 어디를 지향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전주라는 도시의 발전과정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과연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을 하나의 개념화된 명제로 보편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전주대학교 교수

‘전주정신’의 정립은 ‘다른 도시와 다른 차별화된 삶의 방식과 시대적 변화의 이면에 흐르는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를 밝히고 개념화함으로써 ‘전주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도시정체성, 도시이미지)’에 답하는 작업이다.

‘전주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인위적 정제 과정으로 통해 정립되고 교육되어야 할 ‘선도성’을 갖는다.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전주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금 ‘전주정신’의 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은 효율적 투자가치를 확보하려는 현실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전주에 대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주정신의 정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주’ 연구실태와 문제점

1. ‘전주’ 연구의 흐름²⁾

전주지역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전근대 시대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완산지』·『호남읍지』 등과 같은 지리지와 『호남영사례』·『전라감영지』 등 전주지역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었다. 그렇지만 전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 의미의 ‘지역학’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 『금난부』·『이조와 전주』·『전주부사』 등과 같은 전주지역관련 서적 등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지역학에 관한 연구는 중앙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에 둔 주변부 또는 그 일부로서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전주지역의 발전 과정에 필요한 분야가 아닌 중앙의 역사와 문화에 필요한 영역의 연구로 제한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향토문화의 진흥 차원에서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전주사』(1984)·『전주문화』(1986)·『자랑스런 우리전주』(1997) 등과 같이 일련의 지역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이러한 지역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중앙의 역사 문화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의 실태에 대한 분석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2) 전주역사박물관·전주시, 『전주학 중단기발전 기본계획』(2007)

‘전주’에 대한 연구가 지역학적 관점에서 고민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이며, 2000년대에 본격화하였다. 1990년 지방자치의 시행,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역에 대한 지역적 관점의 문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전주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공론화한 것은 역시 자치제의 시행 이후이다.

이러한 논의는 ‘전북학’ 연구로 시작되었다. 1997년 『전북학연구』 전3권이 출간되었으며, 그 이후 각 분야별 논문집 발간으로 계속되고 있다. 전주학은 2000년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의 『신문으로 보는 전주, 전주사람들』·『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2001) 이후 본격화하였으며, 2002년 전주역사박물관과 2006년 전주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전주학의 추진을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2. ‘전주’ 연구 현황

1) 고고학 분야³⁾

고고학분야의 경우 현재 전주시 일원에서의 고고학 발굴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6개소의 발굴·시굴 조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 시대적으로는 구석기시대 1개소가 보고되었으며, 신석기 유적지는 조사된 바 없고, 대부분은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걸쳐있다.⁴⁾ 전주지역의 고고학 성과는 1990년대 이후 집중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재보호법의 강화 이후 지표조사가 의무화함에 따라 신흥 개발지역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⁵⁾ 현재에도 혁신도시 예정지역의 발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법조타운, 35사단 이전부지의 발굴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지역에 대한 발굴과 함께 최근 구 도청사의 전라감영터 부지 발굴, 동고산성 발굴 등 역사시대 이후의 발굴도 진행된 바 있다.

2) 역사학 분야

역사학 분야에 있어서는 마한시대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전주지역의 마한 소국에 대한 전주 비정 연구는 전무하다. 고고학적 성과를 토대로 할 때 마한 소국

3) 전주학 연구 논저현황은 위의 책 부록 참조.

4) 이상균, 「전주지역 고고학의 조사현황과 과제」(『전주학서설』, 전주역사박물관, 2006) 및 정은, 「전북지역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8) 43쪽, <표3> 전북지역 유적조사 현황 참조.

5) 이상균, 위의 논문, 53쪽.

내 일정한 세력이 거주하였다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연구의 공백은 삼국시대 즉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을 당시에 대한 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주라는 독립된 공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후백제에 집중되어 있다. 후백제에 대한 연구는 전주라는 지역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연구보다 국가사 연구가 중심이다.

고려시대에는 전주목에 관한 연구와 관향세력의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며, 본격적인 역사학 분야의 지역 연구는 조선시대 이후이다.⁶⁾ 조선시대의 경우 조선의 건국과 관련하여 태조 이성계의 세력과 경기전의 각종 조사보고서들이 있으며, 주요 연구 테마로서는 경기전의 어진과 전주사고와 실록의 이안, 정여립 모반사건, 완판본과 출판문화, 임진왜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대이행기 동학농민혁명에 관하여는 집강소 운영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천주교사와 기독교사에 대한 연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연구테마이다. 일제시대 이후의 전주지역에 대한 연구는 근대교육과 항일운동 연구가 있으나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⁷⁾

3)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분야 연구 중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테마는 판소리, 한옥, 서예, 한지, 음식 정도이다. 판소리의 경우 전주대사습을 중심으로 전주의 소리문화에 대한 일반연구가 있으며, 한옥은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연구가 있고, 서예는 창암 이삼만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한지의 경우 개괄적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음식은 비빔밥·콩나물국밥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 이외에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연혁지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분야의 정책 보고서가 있다.

3. ‘전주’ 연구의 문제점

첫째, 전문연구자의 절대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학 연구의 진행과정이 개별 연구자에 의한 연구단계로부터 출발하는 점⁸⁾으로 보아 전주 연구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특히 ‘전주’를 연구하는 전문연구자의 부족은 지역정체성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학술적 규명의 뒷받침 없이 향토애에 기대어 행해지

6) 유효석, 「전주지역 중·근세 연구현황과 과제」(전주역사박물관, 위의 책, 2006) 참조.

7) 송만오, 「전주지역 근현대사 연구현황과 과제」(전주역사박물관, 위의 책, 2006) 참조.

8) 김창민, 「지역학의 관점에서 본 전주학의 개념과 방법」(『전주학연구』 창간호, 2007, 57~61쪽)에 의하면 지역학 연구는 개별연구자 연구 - 연구자의 조직화 - 학제적 공동연구 - 비교연구 등의 4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는 다양한 지역 찾기는 곧바로 순환참조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으로 인식되어 버린다. 이러한 성향은 1970년대 문화적 강제에 의한 향토문화의 창달에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결과이다.⁹⁾ 그 결과 지역 연구는 한국적 보편성을 규명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기능하였을 뿐, 지역과 지역민들의 삶의 특징을 밝히기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역”에 대한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지역 정체성 찾기에 골몰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연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시점이다. 지역내 전문연구자의 증가는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학문연구의 특성상 연구의 소재, 재료의 현존과 다양성에 의해서 연구 경향은 규정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에 대한 연구자의 부족은 전문연구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환경에 의한 요인이 크다.

전주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자치시대 이후 지역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커졌다. 지역의 특수성을 밝혀 나가는 과정에서 학문적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연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암묵적 인지 수준에서 찾아진 지역문화의 특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좋아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전주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부족하다.

둘째, 전문연구자의 부족은 연구분야의 공백을 너무나 크게 만들고 있다. 꼭 전주에 사는 사람만이 전주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람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 연구방법론의 시각으로 볼 때 지역내 연구자의 연구는 ‘지역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비교된다. 흔히들 ‘필드’라 부르는 현장감이 지역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연구분야의 공백을 예를 들어보자, 2010년이면 경기전에 어진을 봉안한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경기전은 전주전통문화의 랜드마크로서 한옥마을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기전에 대한 연구¹⁰⁾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기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 경기전 내에서 이루어진 제향의례는 어떠했는지, 어진은 어떻게 보존

9) 한국적 전통문화의 규범화는 지역간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보편적 가치로 획일화하였다. 충의와 예절의 고향이라는 가감 없는 수식어가 지역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그에 걸맞는 사례의 발굴에만 치중하게 만들었다. “규범화된 한국적 전통화의 깃발”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다. 국가에 대한 ‘충(忠)과 의(義)’가 우선시 되었으며, 지역 찾기는 우리 고장도 그러한 고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짐을 지고 있었다.

10) 경기전에 대한 지역 내에서의 연구는 홍승재 원광대학교수의 보고서(『경기전-건축·의례와 유물』, 전주시, 2008)와 김철배 전북대 강사의 학위 논문(『조선시대 경기전의 건립과 관리직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이 대표적이다.

관리되고 유지되었는지 등 어진 봉안 600년을 목전에 둔 지금도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경기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음¹¹⁾에도 일제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기전 운영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어진 봉안 600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전주정신’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주정신에 대한 개념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고 해도 전주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사(思想史)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고대 이래 지금까지 내려온 전주·전주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정신사적 분석 역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글을 쓰여진 바¹²⁾가 없다.

셋째, ‘전주’ 연구의 공간적 의미가 자치단체로서의 전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연구로서 ‘전주’가 가지는 공간적 의미는 행정구역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전라도의 수부로서 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를 포괄했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던 전주는 물리적으로 현대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간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주와 완주의 경우 일제시대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함에 따라 기존의 ‘전주군’에 속했던 현 완주군 지역의 명칭을 새로이 정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그 이전의 연구에서 전주와 완주에 대한 공간인지는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정신’을 정립함에 있어 이러한 공간인지는 자치단체의 정체성 수립 노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¹³⁾ 따라서 전주정신의 수립을 논의함에 있어 지역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왜 ‘전주정신’이 필요하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홍성덕,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일제시대 경기전 관련 문서 해제」 『왕의 초상』, 국립전주박물관, 2005

12) 최근 한옥마을 스토리텔링 조사와 관련한 함한희 연구팀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한옥마을에 거주했던 유학자들에 주목하여 전주 정신으로서 “선비정신”을 찾고자 한 점은 지금까지의 단편적 연구와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일제시대 이후 유학자였다는 점과 구술조사를 위주로 하였다는 점은 향후 보다 많은 학제간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요소이다.

13) 전주와 완주는 본래 동일한 곳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이경전이 지은 경기전 상량문을 보면 “고을의 이름은 전주(全州)·완주(完州)이니, 길이길이 온전하고 완전하리라”(변주승, 『국역 여지도서』 보유1, 전주 묘전조)하여 전주와 완주를 동일한 지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전주보다 완주군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전주부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고산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완주지역이 1914년 전주군으로 편입된 뒤, 1935년 ‘완주군’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의 수립과 ‘완주정신’을 정립해 나갈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Ⅲ. ‘전주’ 정체성과 도시이미지

1. 전주 이미지의 변화

① 조선왕실의 본향(本鄕) - 豐沛之鄕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전주의 이미지는 “조선의 근본을 이루는 땅”이었다.¹⁴⁾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전주이씨였다는 점은 조선시대 ‘전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경기전의 건립이나 전주사고의 설치, 조경묘와 조경단의 설치 등 조선시대 전주는 조선왕실의 본향지로서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다. 서거정은 전주의 공북정에 대해 쓴 기문에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선대가 일어난 태빈 땅과 같은 곳”¹⁵⁾이라 하였다. 왕실의 본향지, 즉 선원(璿源)이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에 ‘완산부’로 승격된 실질적인 정책적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외에 전주에 대한 이미지는,

(전주의) 지리는 가장 아름다워서 참으로 살만한 곳이다. … 전주부성은 인물이 두루 모여, 재화가 넉넉히 쌓여 있어서 서울과 더불어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진정 하나의 큰 도회지이다. … 오직 전주만 맑고 서늘하여 가장 살만한 곳이다.¹⁶⁾

라 하여, 물화의 고장이자 인물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서거정 역시 “남부지방의 인재들이 몰려 있는 곳”¹⁷⁾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물산이 풍부한 고장의 이미지는 고종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호남은 다른 고을과 다르다. 풍패의 고을로서 임금께서는 경기전과 조경묘를 두었던 땅으로 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달랐다. 게다가 물산이 모이는 지역으로 풍부하고 땅이 넓어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대가 내 뜻을 널리 배양하면, 풍요와 평안을 널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일성록』 고종 계사 3월 25일).¹⁸⁾

14) 『완산지』 「남고산성만역루신건기」(『호남읍지』) “완산은 우리 조선의 근본을 이루는 땅이다”

1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주부」 누정(변주승, 앞의 책, 35쪽)

16) 이중환, 『팔역지』 「지리」(홍성덕 외역, 『국역 전주부사』 전주시, 2009, 41쪽)

17) 변주승역, 앞의 책, 35쪽.

18) 홍성덕 외역, 위의 책, 96쪽.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신임 관찰사 김학진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린 고종의 발언에도 역시 풍패지향과 물산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물산이 풍부한 것 때문인지 인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는 인식과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기품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어리석거나 완고하지 않고 모두가 점잖은 선비와 같다.”¹⁹⁾라는 상반된 인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풍패지향의 이미지는 고종대 적극적인 왕실 성역화 사업으로 이어진다. 오목대와 이목대, 조경단 등에 비(碑)를 세운 것은 왕실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 국가를 강고히 한 다음 의세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선을 멸망시키고 강점한 일본 역시 전주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조와 전주』를 비롯한 일제시대 전주를 표현한 많은 서적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실의 본향지라는 이미지로서의 풍패지향이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의 부속 공간에 소학교를 세움으로써 온전하게 유지시키지 않고 훼손하였지만 전주는 경복궁과 같은 왕실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제시대 경기전의 운영을 전라북도나 전주부에 넘기지 않고 황실의 기구였던 이왕직의 직할로 하고, 통제된 관리 운영이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전통적 인식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② 예향(藝鄕)과 농도(農道)

조선시대 전주 이미지로서의 ‘예향’은 다른 도시들과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았다. 대사습놀이의 본거지로서 전주의 기능은 유효하였지만, 그것이 도시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관점으로 정립된 예향의 이미지는 조선시대 당시 농경문화에 기반한 문화양태가 민중문화로 꽃을 피웠다고 한다면, 예향의 이미지는 선비문화로부터 도출된 이미지이다. 민중문화와 선비문화가 이분법적 틀로 규정되지 않고 공유의 통섭문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전주의 문화예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가 향유자에 의해 발전하여 대중적 문화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컨텍스트로서의 판소리는 반체제적이지만 그 주된 향유자는 체제내의 상위계층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예향” 전주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 전

19) 위와 같음, 34쪽

주사람들이 전주를 예향의 도시로 인식하였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조사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몇몇 연구에서 지적인 “예향 전주”의 이미지는 전주 시민들의 생각과 문화지표에 의해 연구자들이 검증해 놓은 이미지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에 전주사람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주의 이미지에 ‘예향’의 이미지가 있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향의 이미지는 일제시대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형성된 인위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예향의 이미지에 대해서 원도연은 예향의 이미지는 19세기를 전후해로 해서 전주의 문화적 상징으로 정착되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조선시대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이 전주지역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문화적인 배출구를 통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²⁰⁾ 그렇지만 원도연의 지적 역시 현재적 시각 아래에 놓여있다. 당시대의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그러했는지, 그러한 문화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도시이미지로 규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시대 풍패지향의 이미지가 예향이미지로 전환되는 시기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라는 도시를 예향, 예술의 도시이미지 만들어지는 시대적 배경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전주의 이미지는 풍패지향의 도시로서 여전히 호남의 대도(大都)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근대 이후 도시이미지는 문화에 기반한다기 보다 산업화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제시대 이후 전통적 물산과 재화가 풍부한 도시이미지가 산업화의 기원 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한 농도(農道)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전주는 농도의 도시로서 파악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지의 배후 도시로서의 이미지는 일제시대 형성되기 시작해서 1960·70년대에 강화되었다. 농도(農道) 전라북도의 이미지는 한국전쟁 당시 제5대 이요한 지사 때 이후 ‘농촌부흥’의 도정방침이 수립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기능하였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농정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농도 이미지는 고착되기 시작하였다. 농도 전북의 이미지는 조국근대화를 위한 산업화 전략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농업생산력을 가지고 있던 전라북도의 이미지는 정책적으로 강제·강화되어졌던 것이다. 전주는 그 지역의 수부로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예향, 즉 문화예술의 전통이 강한 지역으로서 이미지 만들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10월 유신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의 창달이라는 이름 아래 전통문화에 대한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예향의 고장

20) 원도연, 「이미지와 지역정체성 : 전주-과거에서 미래로」 『전주의 문화 정체성』, 신아출판사, 2004, 19쪽.

·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도시 이미지가 정착되어져 갔다.

197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문화운동은 전북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통성을 확인시켜주었다.²¹⁾ 노동자와 농민의 문화로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노동자·농민의 민중적 전통문화의 복원과 함께 지방 정부 차원의 예향문화도시 이미지가 재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전자가 주로 농악과 탈춤 등 민중적 전통문화였다면, 후자는 서예와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선비문화의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이중적 전개과정은 갈등의 요소를 내포한 채 전통문화도시 이미지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③ 전통문화중심도시 - 한스타일과 전주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꿈꾸고 있으며, 한옥·한식·한지 등 전주 한스타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다. 맛과 멋의 고장, 예향으로부터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전환하게 되는 배경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사업의 하나로 ‘7대 문화관광권 개발’을 통한 특화관광사업개발이 추진되면서 부터이다. 7대 문화관광권 개발은 전국을 7개의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총 50개의 중점사업과 80개의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충청권의 백제문화권과 대구·경북권의 유교문화권, 부산~목포를 연결하는 다도해문화권(남해안 관광벨트) 등이 ‘문화권’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문화관광권 개발에 전라북도가 소외되면서, 지역내에서는 전라북도 문화권 개발에 대한 공론의 장²²⁾이 마련되었다.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전라전통문화권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에 앞서 민선2기를 맞이한 전주시에서는 전주를 ‘조선문화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한옥마을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전주시의 전략을 확고해져 갔다.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2000~2010)』(2000)에서 전주의 비전을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전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고, 『첨단문화의 예향, 전주 비전 2010』(2001)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2005)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

21) 원도연, 위의 논문, 24쪽.

22) 2000년 12월 8일, 전주코아호텔에서 가칭 전라북도문화권 개발을 위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전라북도 문화권 개발을 위한 몇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홍성덕(당시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사, 현 전주대학교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등 일련의 용역과제를 통해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전주에 대한 이미지는 전주 방문객 중 전통문화도시(63%), 문화예술도시(31.1%)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전통문화도시(67.2%), 문화예술도시(16.4%)로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이해하고 있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전통문화도시(60.7%), 문화예술도시(16.4%)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²³⁾

2002년도 한옥마을 1단계 조성사업(태조로 확장,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술박물관, 전통문화센터)이 완료된 뒤 가시적인 지역혁신모델로서 자발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왔으며, 2004년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결성²⁴⁾되고 조직적인 홍보와 수많은 공청회 및 워크숍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대한 전주사람들과 타 지역사람들의 이미지 형성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같이 맛과 멋의 고장, 예향의 도시 전주 이미지는 국민의 정부 수립 이후 문화관광권 개발 정책의 참여를 위한 지역문화권의 특징을 ‘전통문화’에서 찾았고, 문화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04년 전통문화중심도시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의 이미지 정립에 성공하였다.

2. 전주 인식과 가치 충돌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전주이미지 변화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상징어를 추출해 볼 수 있다. 전주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어들은 한편으로 이미지 형성에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① **충(忠)과 역(逆)** :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고자 했던 전주지역의 유지세력들이 표방한 것은 조선왕실의 본향지라는 점이었다. 이후 국가의 근본이 되는 터전으로 조선을 떠받치고 있는 정신적 모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전주라는 도시는 조선왕실에 ‘충(忠)’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후백제의 멸망과 고려시대 혼요십조에 의한 폐쇄적 지역정체성을 전주이씨의 조선건국을 통해 개방적이고 중심적인 이미지로

23)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93쪽.

24)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문화산업의 시대를 맞아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로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해 2004년 7월에 결성되어 2006년 12월까지 활동한 민간단체이다. 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백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미래 천년을 열다』(2007) 참조.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실록과 어진을 이안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역적 정서를 기반으로 형성된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반면 정여립의 모반사건과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주성 점령은 반조선적으로 ‘역(逆)’에 해당한다. 조선왕실의 본향지에 대한 정책적 이미지 형성은 때문에 ‘반역향’의 코드와 충돌한다. 정여립의 대동사상과 동학농민혁명군의 인내천 정신이 강조되면 될수록 왕실의 본향지로서 종묘사직에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조발지지(肇發之地)’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② **박해와 순교** : 한국 순교의 일번지라는 타이틀에는 박해와 순교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천주교를 박해하였던 조선왕실의 창업주 영정을 모신 경기전과 배교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했던 유항검 등의 처형지에 세워진 전동성당은 박해와 순교라는 이질적 개념어로 서로 대면하고 있다. 상징적 대면은 물론 공간적으로도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충(忠)과 역(逆)의 대립과는 달리 박해와 순교 역시 비례적 관계에 놓여 있다. 박해의 이미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순교의 이미지도 강화된다. 선악의 기준으로 재단할 때 비례적 관계는 반비례적 가치로 전환한다. 순교가 선이면 박해는 악이 되는 상반적 개념어인 것이다.

③ **선비문화와 아전문화, 민중문화** : 선비는 신분적으로 양반을 의미하며, 아전은 향리들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관찰사, 부사, 도사 등)을 보좌하는 행정실무자들로 중인에 해당한다. 민중은 상민·천민에 속하는 자들로 농업·상업·공업에 종사하는 일차 생산자들이다. 서예와 부채(합죽선), 정악 등으로 표현되는 선비들의 풍류문화는 한벽당과 같은 누각이나 향교, 서원 등의 교육공간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아전문화는 마땅히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것인지 모호하지만, 중앙 관리들을 향한 아전들의 생활 문화로 제한할 때 대사습과 같은 판소리가 해당할 수 있다.²⁵⁾ 음식문화 또한 아전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민중문화는 기층 백성들이 향유한 문화로 농요, 민요 등이 해당할 것이다. 계층간이 구별된 문화양태는 전주의 문화를 하나의 계층적 문화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연계해 볼 때 전주의 문화를 아전문화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 물론 판소리를 아전문화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판소리가 전라감영의 통인청을 중심으로 행해진 연희였다는 점에서 전주의 아전문화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④ **저항과 풍류** : 전주의 문화적 코드로 소개되고 있지만, 전주를 잘 표현하는 용어로 “저항과 풍류”가 지적되고 있다.²⁶⁾ 원도연은 전주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최명희가 말하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꽃심’을 저항으로 파악하였다. 천주교 순교와 동학, 모악산의 신흥 민족종교, 후백제의 등장과 몰락 등 전주의 역사가 곧 저항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저항과 좌절의 역사 속에서 전주는 가장 민족적인 풍류를 꽃피운 도시였다. 판소리와 인쇄 문화, 전통한지의 명맥 등이 그것이다. “전주를 둘러싸고 벌어진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씨줄로 엮어 놓고 보면 그것은 한국의 저항운동사와 맥을 같이 한다” 말하자면 전주는 저항과 풍류를 집약해 놓은 공간인 셈이다. ‘저항’이 혁명을 싹틔우는 새싹이라면, 풍류는 ‘저항’의 외면이거나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전주의 문화코드로서 저항과 풍류는 대립적이다. 저항과 풍류가 “한 바탕 한 뿌리에서 뻗은 두 가래이”라 한다 해도 전주에서 저항의 주체는 풍류적이지 않았으며, 풍류에서 저항정신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전주의 풍류는 패배자의 쓰디 쓴 쓸개즙을 먹고 자라난 피안의 언덕일 뿐이다.

IV. ‘전주정신’의 정립 방향

1. 전제 요건

전주정신은 전주라는 도시를 움직여 온 사상으로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이나 도시 이미지와는 구별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지역정체성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²⁷⁾ 선험적 경험을 토대로 지역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지만 때로는 지역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수립되기도 한다. 도시정신 역시 동일한 개념 아래 놓여 있지만, 정체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전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전주정신은 역사적 근거에 토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정신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과거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경험을 찾아내고, 누적된 경험 속에 일관되어 있는 철학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달성이 보다 중요한 정체성 수립과는 달리 전주정신의 정립은 목표의 달성이 아닌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다음

26) 원도연, 앞의 논문, 26~32쪽.

27) 원도연, 앞의 논문, 12쪽.

목표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둘째, 전주정신의 정립에서 ‘전주’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주의 경우 완주군을 포괄한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라도 수부로서의 역사적 경험은 전주정신이 전라도 정신으로 연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전주정신이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전주정신은 다양한 전주의 정신들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따라서 상호 상반된 개념이 모두 검토될 수 있으며, 양립할 수도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유보되어야 한다.

넷째, 전주정신의 정립은 분명한 목적과 활용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왜 ‘전주정신’을 정립해야 하는가, 전주정신을 정립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궁리해야 할 것이다. 목적성과 활용성이 전제되지 않은 전주정신의 정립은 공허한 담론에 머물러 버릴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주정신은 단시일 내에 정립되지 않는다. 수천년을 내려온 도시의 역사와 그 역사를 영위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는 작업은 지난한 것이다. 몇몇 연구자의 주의 주장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대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한낱 욕심일 뿐이다. 많은 시행착오와 규명을 통해서만 도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신을 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따라서 전주정신은 시대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 연구의 진흥을 따라 전주정신은 새롭게 재정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전주정신은 결코 왕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연구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기존의 전주정신이 도시발전의 지향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지역민들의 동의하에 바뀔 수 있는 것이 도시정신인 것이다.

일곱째, 정리된 전주정신은 삶의 영위방법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정립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전략개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정립 방안

‘전주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충실한 지역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연구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주와 전주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촉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촘촘하게 짜인 지역연구 성과를 토대로 할 때 전주정신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연구에 관해서는 각 분야별 연구사 정리가 필요하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지난 2005년 제1회 전주학 학술대회(전주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를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지 않다. 개괄적 지역사 정리로부터 철학, 문학, 예술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연구사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시대적으로 전주 역사의 근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백제 이전의 시기에 대한 규명과 해석이다. 전주 역사의 출발은 결코 백제일 수 없다. 그 이전에 수천년을 지나온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현재 전주의 삶에 연결지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작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통해 많은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그것이 지역사와 지역문화에 끼치는 영향(해석)에 대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제로서는 사람에 대한 연구이다. 과거 전주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옥마을 스토리텔링 조사사업의 결과도 도출된 선비정신 역시 역사철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둘째, 선도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화 작업을 진행한다. 전주정신의 개념어(상징어)는 많은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정제된다. 전주정신과 관련하여 설정 가능한 다양한 상징어들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저항과 풍류, 선비정신, 절의(節義), 순교, 사랑 등 전주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어는 연구자들에 의해 심화되고 대중의 공유를 통해 전주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방법론적으로는, 주제별로 백가쟁명식의 논의를 통해야 할 것이다. 백가쟁명식의 토론은 연구자들에 의해 심화된 결론을 개별 공간으로부터 집단 공간으로 끌어냄으로써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기별, 단계별, 분야별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각 아젠다별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이 종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젠다 중심 토론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브레인스토밍이다. 지역내 연구자들이 아닌 타 지역의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만 한다.

넷째, 아무리 훌륭한 전주정신을 정립했다 해도 그들만의 소유물이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정립되었거나 정립되어져 가는 전주정신은 대중들과 소통해야 한다.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라는 전주시의 새로운 슬로건 역시 어떤 면에서는 전주정신과 연결된다. 다양한 전주정신을 각종 시책에 연결지어 활용함으로써 전주정신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_ 상생과 해원

역사적으로, 전주는 패배자의 역사로 기억된다. 백제 · 신라 · 고려에 패배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주는 비록 조선왕조의 본향이라는 지역의 자부심을 만들어 내었음에도 정여립 모반사건 이후 ‘반역향’의 굴레에 갇혀버렸다. 일제시대 수탈 1번지로서 제국주의의 공간이었으며, 공간지기로서의 지역성은 해방이후 산업화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패배자의 역사로부터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던 공간지기의 삶은 ‘소외’ · ‘낙후’ · ‘차별’ 등 처절하리만큼 처량한 자조적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도시의 삶은 수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반역향의 이미지를 저항으로 승화하고, 체제 도전을 민중의 해방과 미래의 동력으로 해석해 내며, 패배의 삶에 녹아든 풍류에 주목하는 일련의 논의들이 있었다. 저항과 풍류, 선비정신의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주목할만한 견해들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적 구도보다는 미래 지향적 이미지로서 “상생과 해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원(解冤)은, 원한 · 원망스러운 것 · 마음 아프고 원통스러운 것을 풀다(冤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마음 아픔과 원망스러움, 欲求不滿,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뜻한다.) 풀다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뜻한다.²⁸⁾ 상생은 더불어 같이 가는 삶을 말한다. 해원은 상생으로 승화된다. 응어리를 풀어야만 같이 갈 수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

28) 김진소, 「우리 문화로 읽는 조선시대 천주교도들의 생각」,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문화강좌 2007년 11월.

토론문

전주정신의 정체성

김기현*

사람들은 흔히 ‘정신’이라는 말을, 개인을 넘어 집단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곤 한다. 정신이란 사고와 감정, 의지를 총칭하는 개념이라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호남의 정신, 국가적으로는 한국 정신, 전통적으로는 민족정신, 역사적으로는 시대정신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정의 방식은 한 집단의 특징을 규명하고 사람들의 공동체적 자아를 확인·성찰하며, 미래의 진로를 모색케 해주는 의의를 갖는다.

‘전주정신’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논의의 주제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일련의 의문을 갖는다. 과연 ‘전주정신’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한국정신’이라 하면 그 동안 국제교류 속에서 체험적으로 확인된 한국인 고유의 사고방식으로 잡힐 만한 것이 있겠지만, 국내 타지역과는 달리 전주의 형성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온 전주인 특유의 정신이 있는가?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 사람들은 때로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거론하기도 하지 않은가? 전주(전북)사람들이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뒤로는 남을 무함하기 좋아한다는 비난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전주인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실상을 확인하고 대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규명하고 규정하기가 지난한 작업을 장명수 선생님은 역사적 관점에서 시도하면서,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전주인이 지향해야 할 이념을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기 위해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선생님은 먼저 한국인의 정신으로 흥익정신과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을 풀어 제시하고, 이어 전주정신으로 저항정신과 풍류정신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이 한국인의 정신으로 제시한 흥익정신 등은 사실 포괄적으로는 전주정신의 모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란 모두가 공유해왔을 그것들이 전주인들의 사고와 삶 속에서 어떻게 용해되고 표출되었는지 꼼꼼하게 따

*전북대학교 교수

저보아야 한다. 이는 아마 앞으로 지속적인 논구의 과제가 될 있을 것이다. 다만 선생님의 글은 여러 가지로 너무 소략한 느낌을 준다. 이를 나누어 논의해보려 한다.

먼저 홍익인간의 정신을 거론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려는 것” 정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군신화의 내용 전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거기에 내포된 현세중심적 사고에 주목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이 천상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환웅)이 지상의 인간세계를 회귀하면서 생각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이 세상이야말로 가능성 유토피아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의 원형적 사유요 ‘조선문화의 일체종자’ (최남선)라 할 단군신화를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홍익인간의 정신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 시대에 맞게 새로이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화랑정신 하면 흔히 세속오계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은 것처럼 忠君愛國과 효도의 정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화랑에 관한 崔致遠의 글이나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살펴보면 그것은 유교와 불교, 도가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아우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도덕정신과, 공동체의식, 자연주의적 사고, 더 나아가 심미정조를 함양하고 계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의 공동체(도덕)정신이나 친자연적인 의식, 풍류정신의 원형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화랑정신을 좁게 ‘신라의 무사도’나 ‘삼국통일의 정신’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뜻 깊은 사상과 철학을 밝혀내고 그러한 역사적 유전인자를 이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한국인의 정신으로 제시한 선비정신은 너무 일면적이다. 의병의 정신이 선비정신의 발로양상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작용되었던 의로움의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며, 권력의 위협과 재물의 유혹에 의연했던 의로움의 정신의 근저에는 오늘날에도 매우 긴요한 인간관과 삶의 정신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선비정신의 핵심에는 인간애와 생명애[仁]의 정신이 놓여 있으며, 예절의 정신 또한 그것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 “만물은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李滉)이라 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또 시와 음악으로 풍류를 즐겼던 정신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선생님이 제시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국인에게 공통된 정신인자를 발견한다. 우리 사회에 ‘우리’ 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것처럼 공동체의식 속에서 함양된 도덕정신과, “콩을 세 알씩 심어 한 알은 하늘의 새에게, 또 한 알은 땅 속의 벌레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알은 내가 먹겠다.” 는 자연친화적인 정신, 그리고 촌로들까지도 詩會를 열어 감흥을 주고받는 풍류의 정신이 그것들이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다. 이는 물론 역사적 한국정신의 긍정적인 면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 밖에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우리의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선생님은 한국인의 정신을 살펴본 다음 전주정신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저항정신과 풍류정신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 중 풍류정신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실 그것의 발현형태인 판소리는 전주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주에 가서는 소리자랑하려 하지 말라.” 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더 나아가 전주의 서예 역시 그 한 양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예술철학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거기에 내재된 심미정신을 민중 속에 뿌리내려 생활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주인의 저항정신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말 전주를 저항의 땅이라 말할 수 있는가? 선생님은 의병활동과 동학혁명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것들은 전주(전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면치 못하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항정신의 산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어떤 학자는 전라남도를 저항의 땅이라 하면서 이의 역사적 자료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동학혁명 당시의 왕조질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담겨 있는 동학 본래의 세계관과 삶의 정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봉건사회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드러났지만, 그 근저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아니 오늘날까지도 실현되지 못한 획기적인 사상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로 하늘” 이라는 人乃天의 정신이 그것이다. 이 명제의 뜻은 일견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거기에서 느낄 수도 있다. 이를 고 신동엽 시인의 대서사시 <금강>의 구절에서 엿보자.

그는 동학의 이대교주인 海月 崔時亨의 포교행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전략) 어

느 여름/ 동학교도 徐노인 집에서/ 저녁상을 받았다// 수저를 들으려니/ 안방에서 들려오는 베짜는 소리// 『저건/ 무슨 소립니까?』// 『제 며느리 애가/ 베 짜는가 봅니다』// 『서선생/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 분이 바로 한올님이십니다// 어서 모셔다가/ 이 밥상에서/ 우리 함께 다순 저녁/ 들도록 하세요』(후략)”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이름에 갇혀 산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부인, 선생과 학생, 남자와 여자 등등 사회생활상 각종의 이름에 담겨 있는바, 기왕에 만들어진 이미지(의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면서 살아간다. 이를테면 우리는 결혼과 함께 전에 없던 남편과 부인의 의미와 역할을 갑자기 떠안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들은 자칫 존재를 왜곡시키고 소외시키기 십상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이름(의 의미와 역할)은 두 사람을 평등한 인간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아니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양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본래적인 인격과 순수존재됨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이는 며느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시아버지도 존재의 소외를 겪기는 마찬가지다. 요컨대 “이름은 사물의 진실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E. 카시러)은 터에, 이름에 집착하는 한 자타를 막론하고 존재의 은폐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 분이 바로 한올님”이라는 해월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이름의 존재한 정성과 존재왜곡성을 폭로하고, 존재폭력성을 고발하는 대성일갈의 경구이기도 하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을 각듯이 공경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언어로 무어라고 규정할 수 없는 ‘하늘님’의 신비를 사람들이 외경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풀 길 없는 이름 너머 신비의 존재로 우러르고 경건히 대면해야 한다는 존재론적인 사고가 거기에 깔려 있다. 남편과 부인, 선생과 학생이라는 일상적 존재의 외피를 벗어 던지고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별거벗은 순수존재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내천”의 동학정신은 왕조사회를 넘어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 아니 지상의 인류가 부단히 지향해야 할 영원한 이념이다. ‘동학’ 하면 사람들은 사회혁명의 역사적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간혁명의 정신으로 재조명하고 또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주정신’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이러한 동학정신이 전주인들의, 또는 전북인들의 정신적 유전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터무니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전주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할 이념의 차원에서 ‘전주정신’을 논의한다면 “인내천”의 정신이야말로 아주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마침 전주(전북)는 동학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이야기가 흐르는 전주학

김남규*

I. 전주 바로알기

전주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넘겨보면 지리적 공간 범위안에 고고분야, 건축분야, 미술사, 역사민속 분야가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다. 천년 전주의 역사만큼 깊고 넓다. 옛 마을, 옛 지명, 고지도, 매장문화, 유형문화 민속분야가 지역의 특징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지역사람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문화의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을 바로 알고 지역을 답사하고 마을과 도시가꾸기 사업이 시대적 소명처럼 지역과 문화를 되감기 하고 있다. 지역은 세계와 미래로 향하는 문화발신 기지국이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경쟁력의 에너지이며, 숨어있는 문화 콘텐츠는 지역의 자산이 되고 있다. 자기가 나서 자라고 살아온 텃자리, 삶터에 대한 기초지식은 담고 있어야 한다. 고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자긍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세대간 단절을 이어가야 한다.

몇년 전부터 전주의 문화단체와 소장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전주학’에 대한 모색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주학 학술대회’가 열렸다. 지역학과 전주학에 대한 개념정립에서 범주설정과 방향, 다른나라, 타도시의 사례까지 논의가 활발했으며 『전주학 연구』책도 창간되었다. 전주학은 전주권 사람들이 지키고 기록하지 않으면 전승할 수 있는 주체가 구성될 수 없다. 그리고 타 지역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높낮이와 검증의 절차를 거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제 담론 형성을 마치고 각론의 완성도 찾기에 더듬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고 말했듯이 전 국토는 지역이며 지역은 살아있는 풀뿌리이고 문화의 현장이다. 비슷비슷한 도시화 과정은 대한민국을 뿔뿔히 찢어놓아 만들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이 사라지려고 하는 마당에 지역의 뿌리찾기는 소중한 것이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서도 내면화된 지역학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유럽

*전주시의원

에서는 지역학이 지역 공동체의 모태이며 지역과 세계를 소통하는 길잡이 이다. 유럽을 많이 여행하고 답사한 학자들이나 여행 매니아들은 유럽의 각 도시가 박물관처럼 보존되었거나 그 도시의 서점, 박물관, 도서관, 각종 자료실에는 30~40%가 그 도시의 역사, 문화 자료를 수북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부러워 했다.

자기 도시에 대한 체계적 자료 파일, 수집, 연구로 도시의 층층을 겹겹으로 성곽처럼 쌓고 보존하였다. 도시의 기록 콘텐츠들은 - 오래된 축제, 오페라, 미술사, 인물사 - 왕궁과 공원에서, 광장 및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의 기초자료가 되며 디자인 등 응용분야까지 미래문화를 겨냥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2년이면 수백개의 석사논문이 쏟아지고 4~5년이면 박사 논문이 발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학이나 그 도시, 마을 관련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의 대학이나 학문 영역에서 지역학은 학문의 교과과정에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학에 대한 연구의 성과도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미흡한 수준이다. 중앙집권적 정치 경제는 이러한 풍토를 부채질 하였다. 겨우 문화원에서 향토사 모임이나 지역사 정리 수준의 접근과 활동이었다.

최근 4개 대학의 ‘지역학 대학원’ 이 개설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수업을 진행할 때 향토자료, 고장알기 수준의 지역 교과서의 ‘사회과 탐구’ 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지역사, 향토 문화의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또는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다” 라는 지적이 있고 연구자의 경우 “오류가 너무 많다. 또 어떤 분야는 너무 간소하다” 는 비판도 있고 “유명 인물, 알려진 문화유적 중심 등으로 다양성과 현재성이 너무 떨어진다.” 등의 지적은 향후 전주학의 내용, 범주 설정에 경청할 만한 고언이다.

최근 전주학의 논의와 전개는 소장 역사학자 중심으로 연구가 짜여지는듯 한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기획 단계나 자료수집, 감수단계에 향토사, 금석문, 미술사, 국문학, 민속 생활사, 그리고 각 대학 박물관, 도서관, 문화단체, 문화원, 향토 연구자, 지리학자 등 까지를 포괄하는 연구회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끼리끼리 학술풍토의 배타성 때문에 반쪽짜리 전주학은 애시당초 시작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역문화 주권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역학의 내용과 문화자료 지표수준은 빈약하고 열악하다. 사진자료, 사료모음집, 문화유적 전집 등이 베껴지고 반복 간행되었고 표지만 바꾼 성의 없는 게 많이 양산되었다. 지역의 자료도 나열식에서 벗어난 날줄 씨줄의 그물코처럼 촘촘히 연계되고 심층화 될 때 지역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대상 범주도 시군 단위에서 면이나 마을이야기로 축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관심사도 넓은 문화사에서 생활사까지, 지역 특성이 특화된 이야기가 더 친근해지고 관심 대상이다.

II. 스토리텔링과 구술사

최근 발간된 ‘전주 근대생활조명 100년’ 사업계획 중 제1권 일제식민시대 구술록은 매우 의미있는 자료이다. 근대 100년사는 일제 하 36년, 해방정국, 6.25, 산업화 등의 격변 혼란기 시기를 조명하였다. 많은 기록들이 소실, 분실, 폐기되고 많은 공간들은 파괴되고 멸실되어 와전되거나 왜곡되기 쉬운 시간·공간의 사실들을 증언과 채록에 의해 내놓은 것이다.

이 자료집의 구술실록이 나오기까지는 80~90세 전주토박이의 증언과 구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희미한 기억들을 까막 까막 전하는 채록의 증언들은 당시의 시대성과 일상사를 전승하여 주었다.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이나 향토사의 언저리에도 남아 있지 않고 문헌도 없는 절맥의 시대적 생활사를 복원한 것은 수백개의 논문보다 값어치 있는 것으로 구술 증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까지 역사책이 연대기 중심의 지배사, 정치, 행정사였다면 또한 ‘신문으로 본 전주’의 기사 모음집 처럼 나열식 보도기사가 아니고 역사책이나 신문기사에서 볼 수 없는 그 당시 시대의 생활상과 풍습들을 구술이란 스토리텔링으로 재현한 값진 자료이다. 시골 장터의 인심이 그리움처럼 살아나고 관혼상제 세시풍습이 있는 정서와 오감이 있는 시대의 빗살무늬처럼 생생하였다. 신선하고 흥미있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이야기가 흐르는 전주였다.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 흑백의 무성영화였다.

구술의 전통은 생활과 문화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구술실록처럼 발품을 팔고 힘든 과정을 거친 생활문화적 접근은 전주학의 장르에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주는 역사의 깊이만큼 문화사도 다양하다. 그래서 전주학의 범주는 넓어야 한다. 전주학에서 다루어지고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근대 전주의 도시형성사이다. 도시의 성곽 발달에서 가로망, 주거지 등 도시계획·건축·인구변화 등 도시학 분야로 근대 전주의 공간구성 이야기이다.

둘째는 옛 지도 지명이 어우러진 마을사이다.

셋째는 설화나 민담, 구수한 전라도사투리, 방언 등 국문학적 분야이다.

넷째는 기록과 출판 분야로 쉽게 다가오는 이야기의 해석과 전달이다. 비석, 탁본, 편액 등과 금석문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내는 비문들의 스토리텔링이다.

다섯째는 ‘전주 100년의 풍경’ 사진 모음처럼 각 분야를 테마별로 구성하여 사진 도록을 발간하는 사업이며,

여섯째는 시·서·화의 예향으로서 작가나 주요 작품들을 집대성한 예술사적 접근등이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자연·생태유산의 접근으로 마을사와 더불어 마을 숲, 고개, 길, 당산나무 등 유·무형의 지리, 풍수분야 등으로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렇듯 전주학이 생활적 공간적 접근으로 지척의 거리처럼 쉽게 다가왔으면 한다. 그래서 다양한 전주학의 자료들이 시립도서관 각종 박물관 초·중·고 도서관 등에서 쉽게 꺼내 읽으면서 전주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을 알고 지역에서 놀고 지역을 배우는 길찾기’였으면 한다.

도시는 힘이다. 물리적 기반의 힘과 더불어 소프트한 힘이다. 도시가 강해지고 내용이 풍부할 때 중심도시로서 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소프트 파워는 정신적인 총화이며 문화콘텐츠에서 나오는데 그 바탕이 전주학이다.

Ⅲ. 다른 지방의 사례

한국의 오래된 도시 부여, 공주, 경주, 안동 그리고 전주 등 이러한 전통 있는 역사·문화 유적도시에서 지역학은 중요하다. 한때는 왕도로서 도시의 힘이 강했었다.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 수도를 자칭하며 유교문화권의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다. 기록문화 콘텐츠인 ‘국학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8년에 걸쳐 ‘목판 10만장 모집운동’을 전개하여 민족 문화유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기록유산 등재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개인·문중·서원 등 소장 목판을 조사·수집활동을 하고 있다. 고서, 고문서, 목판 등 20만여 점의 서지정보 입력을 보완하고 있다.

경주는 세계 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왓트와 자매결연하며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행사와 디지털 버전으로 고대문화의 현대화 과정을 거쳐 세계 속의 경주를 지향하고 있다.

제주도는 15개 박물관, 다양한 전시관, 민속마을보존 등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제주의 고유 문화를 지키면서 알리고 있다. 2003년도에는 제주일보사와 제주학회가 공동으로 제주학 학술상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학 학술상 제정 이후 제주도에 대한 연구와 출판물이 매년 20여편이 나올 정도로 제주학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제주학회 회원은 제주에서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육지에서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전국적 학회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이다.

IV. 맺 음 말

전주는 문학과 역사 그리고 문화의 측면에서 주목받을 가치가 충분하지만 이에 비해 연구 성과는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역사, 문화, 민속, 예술분야 등 분과학문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개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과 이들을 끌어내어 조직화하고 정례화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전주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주제와 사업을 개발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전주학은 과거·현재·미래가 소통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 대학교, 지역문화단체, 언론사, 국립·시립 역사박물관 등이 수평적 협의체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에 전주시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주학의 발전은 전주의 현재 지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신적 구심이 될 것이다.

도시는 힘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의 소프트 힘이 에너지화 될 때 전주의 옛 명성은 회복될 것이다. 스토리텔링이 산업화되는 문화의 시대. 이야기가 흐르는 전주 이야기가 흥미있고 재미있을 때 창조산업의 기반이 되는 우수 인력과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한국의 혼이 종자화되어 CD로,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영상화 될 때 이야기 산업의 기반은 전주학이 넓고 깊은 저수지가 될 것이다. 시인의 감수성과 소설가의 풍부한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회경제사로 본 전주정신

소순열*

I. 전주의 경제 - 공시성(共時性)과 통시성(通時性)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금성출판사, 2005)를 보면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공업은 한지·부채와 섬유·제지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면 사회과 부도에서 전주의 주요공업으로 식품·화학·공업·자동차 공업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물산이 풍부했던 전주는 60년대 후반부터 성장의 정체도시로 빠져 들었다(김영정, 1991). 민력(民力)의 가장 대표적인 인구수치만을 보아도 그렇다. 1970년전국에서 9위였던 전주시가 35년 지난 2005년 15위로 떨어졌다. 시(市)에도 끼지 못했던 안양이 이제 호남제일성인 전주와 인구가 같아졌다(표1 참조).

통계청이 해마다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광공업통계조사라는 것이 있다. 이에 의하면 2005년 광공업사업체는 378개,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48위이다. 인구가 비슷한 안양보다 4분의 1, 부천보다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전주의 광공업체는 총 사업체의 10%도 채 안 된다. 무려 총사업체의 4분의 3이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체이다. 여기에다 금융·보험·운수 통신 등의 서비스업체를 넣으면 사업체 가운데 9개가 제3차 서비스업체인 셈이다.

전주는 서비스산업위주의 전형적인 도시형 산업 구조이다. 전주와 인구가 비슷한 마산이나 청주와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체 비중이 무려 10%나 높다. 서비스 산업의 몸집이 전주의 생산활동규모에 비해 너무 비대한 것이다. 농업, 공업생산과는 밀접하게 연관이 적은 도·소매, 숙박, 음식점과 같은 소비자 서비스 산업이 반 이상이다. 전국 전주의 일반 음식점 수와 숙박업체 수는 시군 순위 10등 안에 있을 정도다.

이런 소비자 서비스의 비대화는 지역경제에 전후방으로 효과를 미쳐가며 확대재생산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농업의 축소, 공업의 위축 내지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어느 신문의 사설처럼 전주의 산업구조는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 소비도시형태로 고착화될지

*전북대학교 교수

모른다(전북일보, 1999년 8월 9일). 전주의 경제는 확실히 생산보다는 소비 위주로 내세울 것이 없다. 1940년대(전주부사, 1943)에도 그랬고 60년대에도 그렇다(전주부사 1943, 전주시 건설종합계획기본조사보고서 1964).

세월이 흘렀는데 전주경제, 전주사정은 여전하다. 경제적으로 전주는 왜 뒤쳐지는 도시가 되었을까. 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표 1] 전주시의 인구비교

순 위	1970년(전국 172개 시군)		순 위	2005년(전국 167개 시군)	
	지역	총인구(천명)		지역	총인구(천명)
1	서울시	5,433	1	서울시	9,820
2	부산시	1,842	2	부산시	3,524
3	대구시	1,064	3	인천시	2,531
4	인천시	634	4	대구시	2,465
5	광주시	494	5	대전시	1,443
	.	.		.	.
	.	.		.	.
	.	.		.	.
7	삼척군	273	13	안산시	682
8	양주군	245	14	청주시	643
9	전주시	258	15	전주시	623
10	정읍군	254	16	안양시	612
11	서산군	259	17	천안시	52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많은 사람들은 지난 정권의 지역차별정책탓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소외론’으로는 16개시도 가운데 1인당 지역총생산이 10년 넘게 꼴찌인 대구를 설명하지 못한다. 현재 대구는 섬유, 건설 등 주종 산업이 쇠락하면서 안경테 등 주변을 지탱해 주던 업종도 거의 전멸한 상태이다. 문제의 상당부분은 급변하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라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전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주경제의 낙후성을 외래적·공시적 조건 즉 정책론적 레벨에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전주경제의 낙후성을 보다 다 잡아 보기 위해서는 내재적, 통시적 조건을 중요시여기지 않으면 안된다. 각각의 지역에는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인 개성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경제·사회·법률·종교 등 여러 문화 제영역이 합쳐져야 문화가 형성되며 그 근저에는

이를 관장하는 정신이 있다. 이 때문에 문화 제영역은 각기 고유한 법칙이 있어 상호배타적이기도 하고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정신에 의해 제어 된다. 적어도 경제라는 사상(事象)을 뽑아내어 전주정신의 내재적 통시적 조건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은 일면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과학은 단지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라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시사해 주듯이 정책과의 무매개적인 직결, 자만적인 향토사적 접근 등 과학적 인식결여 문제는 다소 해소될 듯하다.

II. 전주 정신과 경제 - 선비대망론(선비待望論)

정신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초개인적 원리로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적어도 전주정신이라면 시대가 바뀌더라도 전주시민(혹은 출신)이 공유하고 있는 주체적이고 독자적이며 자립적인 가치이어야 한다. 전주정신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자연적, 사회경제적 조건→자원의 부존상태→생산양식→생활양식의 메카니즘을 통해 주체성, 독자성을 가지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이른바 ‘풍토론’).

이제까지의 전주정신(내지 관련특징)에 대해 정리하면, 일제시대의 식민사관, 감성적 인식을 제외하고 주로 전주정신은 ‘온의 정신’, ‘왕도정신과 선비정신’, ‘화이부동(和而不同)’, ‘저항과 풍류정신’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선비정신’과 ‘저항과 풍류정신’을 관련시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것은 기초발표 또한 궁극적으로는 선비정신을 저항(임진왜란시 의병활동, 전주성 사수)과 풍류(판소리, 음식)의 사상적 원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전주정신(내지 관련 특징)

출처명	전주 정신(내지 관련 특징)	비고
전북의 길잡이(1929)	교육도시, 교토의 정취	
전주부세일반(1941)	순치하고 인정 많고 우아	
전북부사(1943)	기력 상실, 늘 낡은 인습	
전영래(뿌리깊은 나무, 1983)	온의 정신, 낙천적이며 평화롭고 다사로움	
강준만의 (재미있는 전주 이야기, 2008)	화이부동(和而不同, 화합과 조화의 가치)	
김상휘 (전주정신 소설바탕의 의도, 2009)	강하고 올곧은 자존심, 왕도 정신과 선비 정신	
장명수(기조발표, 2009)	저항과 풍류정신	

먼저 선비라고 불리우는 계층이 얼마나 되었을까. 한일합방전 전주의 양반호수는 49호로 전체호수의 0.3%, 유생 20호까지 넣어도 0.4%미만에 불과하다. 전주를 선비사회로 일컬어도 좋을 만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만큼의 세력이 아니다(표 3참조). 실제로 작춘 조병희선생은 양반이 아전에게 꿈쩍 못하였다고 할 정도이다(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2001). 이를 당시 전국에서 확인해 보면 300호 이상 양반가구호수는 전북 가운데 홍덕군(565호) 하나 군 밖에 없었다. 양반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충남의 경우, 양반호수가 전체 가구 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사회에서 선비는 저항보다는 강학과 후진양성을 택하였다. 간재 전우같은 분은 학자를 양성하면서 학문이 지방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자만 해도 3천여명에 달하였다(김기현, 2008).

[표 3] 합방직전 전주의 직업별 구성(1910.5)

직업	호수(%)	직업	호수(%)
관리	97 (0.52)	공업	225 (1.20)
양반	49 (0.26)	날품팔이	402 (2.14)
유생	20 (0.11)	기타	156 (0.83)
상업	1,518 (8.08)	무직	166 (0.88)
농업	16,161 (85.99)	계	18,794 (100.0)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0.

[표 4] 300호 이상 양반가구의 도별 분포(1910.5)

(단위 : 호, %)

지역	가구수	호별 양반호수
한성부(1부)	1,189 (2.1)	북부(554)
경기도(1군)	1,879 (0.8)	양평군(646)
충청북도(5군)	5,829 (4.5)	제천군(1,890), 연풍군(1,318), 충주군(486), 음성군(347), 단양군(336)
충청남도(18군)	22,481 (10.3)	목천군(2,388), 공주군(2,238), 정산군(2,122), 연산군(1,881), 홍주군(1,828), 대흥군(1,747), 양덕군(1,540), 연기군(1,418), 직산군(1,197), 아산군(1,050), 전의군(647), 천안군(643), 노성군(516), 은진군(491), 청양부(350), 진잠군(344), 덕산군(330), 부여군(321)
전라북도(1군)	2,113 (1.0)	홍덕군(565)
전라남도(1군)	1,723 (0.5)	담양군(322)
경상북도(9군)	13,130 (3.8)	경주군(2,599), 풍기군(2,294), 봉화군(2,213), 영천군(1,526), 순흥군(1,267), 예안군(664), 선산군(473), 장항군(402), 안동군(337)
경상남도(1군)	1,292 (0.4)	밀양군(361)
강원도(2군)	1,790 (1.1)	형성군(560), 삼척군(462)
함경남도(1군)	865 (0.4)	감산군(415)
합계(1부 39군)	52,293	

주 : ()는 각각 해당 부군수, 해당지역 총가구수의 비율, 양반호수임.

자료 : 표 3와 동일.

한말 의병활동이나 3.1운동 때에는 타 지역에 비해 적게 일어났다. 3.1운동 같은 경우 전북은 3월에 1부 14군 중 1부 2군, 4월이 되어도 4군에서 운동이 일어난 것에 불과했다. 당시 관헌자료에서도 ‘몇 군데에서 폭행사태가 일어나거나 교량에 방화하는 일이 있는 외에는 대체로 평온하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조선헌병대 사령부, 1919). 일제시대 전주의 소작쟁의도 1926-39년간 842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제 특히 일본인지주에 대한 정치적 투쟁보다는 경제적 요구가 많았으며 대부분 소작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원만히 해결된 것이었다. 저항하기도 보다는 체제속에서 순응하여 경제적 이득을 구하였다.

선비는 오로지 대의를 논해야 되고 세력과 지위에 굽히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 정신은 역사적 항일운동은 발현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풍류도 마찬가지이다. 훌륭한 선비는 민중 앞에서 초연해야 했으며 민중이란 따르게 하고 알려서는 안 될 중우(衆愚)에 지나지 않았다(송건호, 2007). 별개의 사회에서 별개의 풍류를 즐기지는 사회의 분단적 구조에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선비정신은 삶을 간소하게 하고 풍아(風雅)의 유유작작한 마음을 갖는 것을 참된 인간의 고결한 생활로 여기고 있다. ‘초가에 비가 새고....’ 라고 할 만큼 빈궁에 태연하다. ‘궁색한 산림이지만 벗이 오면.....’ 과 같이 비세속적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으로서 자격상실이며 구조조정감이다.

최근 한영우 교수는 문화포럼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지키며 백성의 삶을 끝어 안았고 도덕과 양심을 위해 모든 영광을 미련 없이 포기했던 선비정신이 필요한 때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의 황금만능주의, 사생활행복주의 속에서 사회 지도적 인사가 저지르는 온갖 부조리, 비리에 대한 반향이다. 선비들은 대의를 위해 왕에게 직언을 하였고 때로는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비정신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조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의 정신이던 조선의 선비정신은 모두 사라졌다.

Ⅲ. 전주정신의 지향점 - 전통과 현대를 함께하는 신(新) 화이부동정신

조선의 선비정신은 전주에서도 정신적 기반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 원인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윤리(Protestant

Ethic)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윤리적 전환을 했다. 단순한 영리욕이 아니라 영리추구가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윤리적인 선 및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였다. 종래 상업과 노동이 천시되었던 사상에 비하면 대전환이다. 왜 전주는 선비정신이 지닌 교육열,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 자기 절제, 통합적 인문교양 등을 전주라는 그릇에 못 담았을까.

나는 나름대로 답아왔다고 생각한다. 전주가 전주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계층과 계층, 지역과 지역을 답아왔다. 뜻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화목할 수 있게 지내는 포용력을 갖고 있다. 화이부동이 표방하는 화합과 조화의 가치는 전주의 대표음식이라 할 비빔밥에서 잘 드러난다(강준만, 2008).

나는 이런 가치가 경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섞어야 아름답고, 섞여야 강해지고, 섞어야 살아남는다. 학계, 기업, 사회가 함께 섞어야 한다’ (최재천교수). 일하는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법이다. 지역에 힘이 있나 없나는 경제력에 달려있고, 경제력은 곧 경제활동을 해 나가는 산업의 힘이다.

전주시의 일인당 총생산이 얼마인지, 전국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도대체 알 수 없다. 전주시가 울산시와 함께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운동을 벌일 때,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전주직할시 승격추진위원회 ‘전주직할시 승격을 위한 기본구상’ 1994년). 이 보고서에 의해 전주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 1991년 전주의 지역 총생산은 1,737억원. 그 당시 현대그룹 전체 자산액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전주의 1인당 총생산은 3,360천원으로 전국 평균의 86%에 불과하다. 전주의 경제력은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 평균에도 따라 잡지 못한다.

흔히 전북을 3%경제라고 한다. 전북이 전국에서 고용·금융·수출·조세 등 차지하는 비중이 3%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전북도내에서 전주의 비중을 따져 보면 전주의 경제력은 단연 으뜸이다. 전주는 면적으로 따져서 불과 3%의 면적도 채 안된다. 그런데 전주에 전북 전체 인구의 30%가 모여 산다. 전북 전체에서 20%이상 수출하고, 예금액과 국세비중은 각각 62%, 53%를 차지한다.

서울에 가서는 명함조차 내지 못하더라도 전북 안에서는 뽕뽕거리는 세도가이다. 더욱이 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전북의 경제력이 전주에 집중되어가고 다른 도내 시·군지역과의 격차가 커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가 형님노릇을 제대로 해야 전북이 고루게 잘 산 다라는 이야기이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만들 때부터 일본 가나자와시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다. 가나자와

에게 배울 것은 문화만이 아니라 지역자원을 고도로 관리해가면서 내향화해 가는 내적·연관적 산업발전이다. 가나자와는 전통적인 직물업을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독특한 산지구조의 형성과 관련하여 발전시키고(면→인면→섬유직물로 전환), 염색업, 기계, 금융산업을 육성시켰다. 그 결과 중견 중소기업과 기업의 본사기능이 집적됨과 동시에 금융기능, 도매기능, 서서비스업, 인쇄업 등 다양한 본사관련 기능산업이 모여들었다. 이로 인해 전통문화, 자연을 중시하는 의식이 높아져 문화도시로서 성장 발전한 ‘산업도시’, ‘문화도시’로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임해부에 철강, 섬유화학 등 외래기업을 유치하여 신산업도시 건설의 우등생으로 커졌던 오이타시는 단순한 ‘공장도시’로 되었다. 더구나 오이타시는 해외원료를 사용하여 소재제품을 생산하고 지역에서 가공하지 않는 수출용 공업생산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지역 내 순환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고용효과도 적고, 소득수준도 낮은 외래기업의 ‘생산현장도시’로 되었던 것이다. 40여년이 지난 뒤 오이타는 인구, 고용, 판매, 소득, 금융 등 모든 면에서 가나자와에게 뒤떨어지고 있다(표5참조). 이를 지역경제학에서는 외래적 개발과 내발적 개발이라고 부른다.

[표 5] 가나자와시와 오이타시(2003)

구분	단위	가나자와시(金澤市)	오이타시(大分市)
인구	만명	47.1	43.9
세출	억원	1,986	1,521
소매판매액	억원	5,897	5,197
종사자수	천명	26.8	21.7
은행예금잔고	백억	21.9	14.7
과세대상소득	만원	353.8	341.3

자료 : 東洋經濟(2004.5)

가나자와의 지속적인 성장비결은 대기업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개발방식이 아니고 지역의 기술·산업·문화를 토대로 지역 내 시장발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메이지 유신 이래 가나자와의 쇠퇴를 우려하고 재생을 구하는 의식 있는 경제인, 지역주민, 행정의 결합이 내발적 발전의 기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 전주는 과거 천년의 자존심을 미래 천년의 자존심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 ‘전통과 현대가 함께 하는 신 산업도시’로 갈려고 하고 있다. 그 핵심은 5대 역동산업(한스타일, 생태관광, 영화영상, 생물생명, 부품소재)이다. 이를 이루어 내려면 기업, 공급업자, 관련산업, 전문화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이 모여야 한다. 모여서 협조와 경쟁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을 만들고 이를 상품화하여야 한다. 각 행위주체 들끼리 가치사슬화(value-chain)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섞어서 만드는 신 화이부동 정신이 필요하다.

전주정신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송화섭*

I. 기질이 정신의 본성인가.

오늘날 정치구도를 본다면 경상도와 전라도는 본성이 다른 듯 하다. 경상도는 한나라당을 선호하고 전라도는 민주당을 선호한다. 풍년으로 인한 추곡수매가격 하락에 대한 투쟁도 두 지역이 조금 다르다. 전라도 농민들은 트랙터로 추수할 벼를 통째로 갈아파서 엎어버리는가 하면, 수확한 벼 가마니를 관공사 앞에 쌓아놓고 시위와 투쟁을 벌이는 매우 적극성을 보이는데 반하여 경상도 농민들은 비교적 추곡수매가 조정에 대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러한 행동방식은 그 지역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의 기질이 다른 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러 나온다고 본다. 본성은 사람의 심성에서 나온다. 심성은 마음의 성격을 말하고, 마음은 정신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고 표현된다.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의 심성이 다른 것은 종교 성향에서도 뚜렷하다. 경상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불교신자들이 많고, 전통적으로 사찰이 더 번창하는데 비하여, 전라도에서는 그리스도교(천주교·기독교)의 신도들이 많고, 인구수에 비례하여 교회의 숫자가 경상도에 비하여 훨씬 많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불교사상의 구도를 놓고 본다면, 통일신라시대에 경상도는 화엄사상을 중시했던 땅이라면, 전라도는 미륵의 땅이었다. 전라도 사람들이 미륵신앙과 사상을 선호하였음은 익산의 미륵사계사찰과 사리봉안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심성은 불교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지역민들의 정서와 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와같은 심성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내려와 오늘에까지 이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심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발표자는 기질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기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연지리적 환경이요,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이며, 세 번째는 인문적 환경이 작용하여 생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전주대학교 교수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도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다. 광주 중심의 전남사람과 전주중심의 전북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고, 남원사람들이 다르고 정읍사람도 다르고 부안사람들의 기질도 제 각각이다. 비록 큰 차이는 아닐지도라도 약간의 기질 차이는 사람들이 사는 자연환경, 즉 지리·지형이 다른데서 기인하는게 아닌가 한다. 기질이 다르면 문화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조선후기에 전라도를 자연환경의 기준에 따라 좌도와 우도로 구분한 바 있다. 좌도는 산간지방이고 우도는 평야지방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는 좌도에 속하고, 정읍·고창·부안·김제·완주·익산·군산은 우도에 속한다. 쉽게 구분한다면 우도농악과 좌도농악이 확연하게 다르다. 좌도소리 다르고 우도소리가 다른 것은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 땅과 산세와 물길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속에서 일개의 사건과 제도를 정신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화랑제도는 통일신라에서 창안된 것이고, 동학사상은 경상도 경주에서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것이다. 화랑의 세속오계는 일종의 교육 규범이지 오늘날 경상도 사람들의 정신과 연계시킬수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 간다. 또한 동학을 사도라 하여 최제우가 처형되었는데, 최제우의 신원운동을 앞장서서 집단행동을 한 주체가 전라북도 사람들이다. 동학도 모르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무리지어 동학정신을 선호한 것이다. 전라도 농민들이 최제우를 좋아해서 신원운동을 벌인게 아니라 동학의 정신세계를 선호한 탓에 집단행동으로 옮겼다고 본다. 수운동학은 종교의 사상체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 논리가 농민들의 마음(심성)을 사로잡은게 직접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수운동학을 농민동학으로 바뀌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평야지대의 농민들이다. 동학이 전라도에서 와서 평야지대의 농민층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것도 혁명적인 기운이라기 보다는 농민들이 이상세계와 합치되는 면이 있었기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고 본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칫 농민들의 정신, 심성을 들여다보는데 흐릿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닐까.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주성을 방어하고 왕조실록과 어진을 이안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 거기에서 저항정신이 깃들여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왕조실록을 보존하려 했던 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어진 이안은 어진각이 전주에 있었기에 국가의 존엄과 관련된 것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책무였을 것이다.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서 모두가 의병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었다. 농민들 뿐만 아니라 글방에서 선비들이 뛰쳐나오고, 산 속에서 수행하는 승려들까지 모조리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것은

전주만의 사건은 아니라 전국적인 사건이었다. 양란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태극기를 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국운동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가져야 할 필연적인 민족의식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명수 선생님의 발표문에 나오는 “전주정신”에서 “저항정신”을 언급한 것은 전주사람들의 심성을 읽어내는데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풍류정신을 이야기 하면서 판소리와 전주대사습놀이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판소리문화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대사습에서 사습(射習)은 활쏘기를 말하는데서 유래된 용어이지 소리사습의 용어는 문헌과 사전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현재로 볼 때, 전주대사습놀이는 명창들의 잔치마당이지 풍류를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따라서 전주정신을 「저항과 풍류」에서 찾는것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

II. 지리인성론의 관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여 각 고을마다 사람들의 기질이 지리, 지세에 따라 다른 것을 기술해놓았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전국 팔도의 지세와 지리, 지형 등을 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성이 다르다는 「地理人性論」의 논리를 펴왔다. 이러한 논리는 학자마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것으로 믿을 것은 못되지만 참고할 수는 있다고 본다. 성호 이익과 청담 이중환의 전라도 인성론을 엿보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전라도는 산수가 모두 산발체(散髮體)를 이루면서 흩어져 나가 국면을 이루지 못하므로, 그 지방에는 채주와 덕행이 드물고 인정도 고약하다 하였다.”고 하였고,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전라도의 풍속이 노래와 여색, 부(富)함과 사치를 숭상하고 사람들이 흔히 영리하고 경박하며, 기교를 다하여 문학을 중요시하지 않는 까닭에 과거급제에 현달한 자는 경상도에 비해 떨어진다.”라 하였다. 전라도 사람들이 과연 그런한가는 각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다만 자연환경의 조건에 따라 자연의 조화와 기운이 사람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 심성이 기질일 것이다. 자연의 지세와 땅의 기운이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 고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그 조건에 맞추어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산, 들, 바다는 자연지리적 환경이 다르다. 농촌과 산촌, 어촌이 다르고, 도시와 농촌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자연지리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자연지리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생활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살면서 자연지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인 지리인성론일 것이다.

Ⅲ. 전주 정신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전주정신은 전주고을에서 찾아야 하고,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읽어내야 한다.

전주의 한글 표기는 ‘온고을’이다. 전주의 옛지명은 「完山州」이다. 통일신라 시기의 온고을이라 불려오고 있는 것이다. 완산주를 한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산세가 완비된 고을」「산세가 온전한 고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산세가 완비되었음은 사람살기에 좋은 산세를 갖추었다는 말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전주의 지리는 우선 배역이다. 전주천이 남동출하여 북서류하는 지세이다. 한마디로 풍수지리적으로 본다면, 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전주다. 물이 흘러 빠지는 북서쪽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하고 제방을 쌓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벌어진 곳도 전주다. 풍수지리적으로 불완전한 자연지리를 보완하여 좋은 고을로 만든 곳이 전주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고, 그릇지형처럼 분지형을 갖춘 곳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고요한 늪과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지형지리를 갖추고 있다.

전주라는 공간속에서 작은 마을들이 태동하여 성장, 결합하여 전주가 되고, 완산주가 되었다고 본다. 전주가 역사속에서 도시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이후 후백제시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을 것이다. 후백제라는 왕조가 전주에 들어섰기 때문에 도성이 조성되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고, 관아시설도 들어서며 왕족과 귀족들이 사는 도시도 조성되었을 것이다. 작은 마을들이 큰마을로 전환되면서 전주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전주를 가꾸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전주의 중심은 전주읍성이었고(오늘날도 같은 곳), 전주 읍성은 남향으로 공간질서를 갖추어 자연지세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산지도성이 평지도성으로 전환되면서 전주 읍성은 조선초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중양동(풍남문) 시대의 도시중심은 조선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언제부터인지 전주사람들은 전주읍성을 둘러싼 전주의 산세에 이름을 붙여 놓았다. 사찰명 앞에 산의 이름을 붙이듯이, 전주읍성을 둘러싼 산에 명칭을 붙인 것은 전주사람들

이 전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진산을 두고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18세기 고지도에 전주읍성을 둘러싼 지명은 성황봉, 기린봉, 도술봉, 건지산, 곤지산, 화산(태극산), 완산, 다가산 등의 등장한다. 이러한 지명을 그냥 붙여놓은 것은 아닐 것이며, 오랫동안 이러한 자연지리적 산세에 둘러싸여 살아온 사람들이 제각각 의미를 부여하여 산의 지명을 붙였을 것이다. 이 지명에는 도교적, 불교적, 유교적인 명칭이 모두 들어있고, 산이 위치한 방위에 따라, 자연지리적 여건에 따라 산의 지명을 붙여놓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산의 지명에 전주정신이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도술봉은 전주를 도술천의 세계로 인식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전주의 읍성을 내원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완산지』에는 전주에 사면석불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전주에서 사면석불로 추정하는 석불이 모두 미륵전에 미륵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도술봉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불교가 발달했던 시기에 전주사람들은 전주를 미륵불국정토세계로 조성하려 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역사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달라진다. 산세와 산의 명칭에서 조선시대에 살았던 전주사람들의 정신세계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전주사람들이 생활속에서 생성되거나 의례적인 삶속에서 자연스리게 피어난 것이 산의 지명이라고 본다. 사고사찰로 추정된 전주의 진북사도 내면을 들여다 보면 북쪽을 진호하는 사찰로서 비보적인 성격이 강하다. 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건도 아닐 것이다. 전주정신은 전주라는 공간에서 읽어내야 하는데, 완산주라는 지명이 생겨난 이후에 천년동안 전주에서 온고을을 지향하려는 다양한 문화구도가 겹겹이 장치되어 왔으며, 그 문화의 층위가 전주정신의 토대를 구축해 놓았다고 본다. 전주정신을 언급하려면 이러한 전주정신의 사상적 토대를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한다. 전주사람들이 어떠한 유형의 온전한 고을을 조성하려고 했는지에 천착하는 작업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전주정신, 넉넉함과 포용력

이동희*

I. 전주정신, ‘저항과 풍류’에 대한 견해

최명희는 《혼불》에서 전주를 꽃심을 지닌 “저항과 풍류”의 도시라고 하였다. 꽃심은 싹을 띄워내는 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을 의미한다. 《혼불》에서 관련 대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풍광도 수려하고, 물산도 풍부하며, 교통의 요지로서 사람과 물물의 왕래가 빈번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이 되는 전주 완산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런 끔찍한 백안(白眼) 외면을 당했던 것이다. 그것은 꽃심을 가진 죄였는지도 모르다.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그 꿈은 지배자에게, 근(根)이 깊은 목의 가시와도 같아서, 기어이 뽑아내버리고자 박해, 냉대, 소외의 갖은 방법을 다하게 했다.” (최명희, 《혼불》 8권)

“어쩌면 〈저항과 풍류〉이 두가지는 아주 상반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 가진 자는 저항하지 않으며, 억울할 일이 없는 자, 혹은 세상을 거머쥐려는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의 검붉고 길쭉한 혈관에는 풍류가 깃들지 못한다. 풍류는 빈자리에 고이고, 빈자리에서 우러나며, 비켜 선 언덕의 서늘한 바람단이 이만큼에서 멀리 앓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면 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은 한 바탕 한 뿌리에서 뻗은 두 가쟁이다.” (최명희, 《혼불》 4권)

오늘 기조발제문에서도 전주정신을 저항과 풍류에 놓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토론자도 기본적으로 전주정신을 저항과 풍류에서 찾는 취지에 동의 한다. 다만 저항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을 담은 ‘변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전주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견제에 대한 저항보다는 이를 승화한 새 세상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이전에 발표한 글에서 풍패지향에 주목하여 자궁심과 전통을 이어가려는 전주정신을 언급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한 적이 있고, 변혁과 예향이라는 관점에서 전주의 특질을 논한 적이 있다.²⁾

그런데 토론자는 또 다른 시각에서 전주 정신을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다. 전주 정신에 변혁과 풍류, 자긍심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가능케 한 근원적인 전주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용력 있는 넉넉함에서 전주 정신의 토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넉넉함에서 오는 포용의 정신, 그것은 어머니와 같은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토론자는 다소 두서없고, 막연하지만 이런 시각의 전주정신을 언급해 전주정신을 정립해 가는 하나의 논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II.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질과 정신

전주의 특질을 이야기할 때 농경문화와, 그 안에서 조선제일의 비옥한 땅 호남의 수도가 전주였다는 사실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는 20세기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 농경사회로 농경문화의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농경사회에서 비옥한 땅으로 경제적 풍요를 구가했던 곳이 전라도요 전주이다. 물론 이것은 타 지역과 비교선상의 이야기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넉넉함을 전주가 지녔다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1/3이 전라도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전라도와 전주의 경제력을 짐작케 한다. 전주와 호남의 문화에는 이런 경제력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정신은 경제적 넉넉함에 기반하고 있다.

전주는 이러한 경제력을 토대로 정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9주 5소경 체제에 들어와 주가 설치되어 익산을 대신해 전북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어 후삼국시대에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후백제의 왕도로 자리하였다. 조선시대에 전주는 건국자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더불어 오늘날의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제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호남제일성이 되었다. 현재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이렇게 볼 때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중심도시로서 역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특질을 지닌다고 하겠다. 전주의 기품은 이런 전통에서 자연스

2) 이동희,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의 문화유산과 정신」 『전주의 정체성』(전라문화총서 12), 신아, 2004. 이 글은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한 “전주정신이란 무엇인가”(2000)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 이동희,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질과 과제」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전주역사박물관 개관기념학술대회자료집), 2002.

럽게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중심도시로서의 오랜 역사가 전주사람들에게 자긍심과 넉넉함을 가져다주었으며, 기품있는 전주·전주인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주는 또한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근래 여러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도시, 예향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주야말로 전통적인 예향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영남과 호남을 비교할 때, 호남은 예술이 발전했다고 생각되며, 그 호남의 중심이 전주이다. 전주는 문화적 역량으로 볼 때 한양과 함께 조선의 문화예술을 선도해 간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세계무형문화로 등재된 소리가 그렇고, 빼어난 음식문화가 그리하며 춘향전·심청전 등 완판본을 중심으로 한 기록문화가 그렇다. 이런 문화예술 또한 전주의 경제력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전주인의 넉넉한 심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전주는 또 임진왜란 등 국난극복에도 앞장섰고, 반상의 차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으며, 만인 평등의 새로운 사상이자 종교인 천주교의 만개지이기도 하다. 전주와 전라도는 왜란의 와중에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고, 조선제일의 옥토 호남을 지켜내 7년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반이 되었다. 왜란 직전 정여립사건으로 전라도가 축발이 되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왜란 극복의 주역으로 전주와 전라도가 자리했다는 것은 꺾박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전라도의 도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학농민혁명은 전주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을 표출한 것이며, 천주교의 만개는 배타적이지 않은 전주의 포용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전주정신의 근원, 넉넉함과 포용력

그러면 이런 전주의 역사적 특질을 관통해 주는 전주의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넉넉함과 포용력이라고 생각한다. 전주의 역사문화는 곧 전주가 타자를 받아들이 줄 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잉태해 내는 넉넉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주의 경제력과 정치적 위상이 전주사람들에게 넉넉함을 가져다 주었고, 이런 넉넉함이 전주를 전통의 기품있는 도시로 만들었고, 풍류의 문화예술을 꽃피웠으며, 국난극복과 새 세상에 대한 열정이 강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날 전주가 외형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돌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어머니

같은 아늑하고 포근한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전주는 중심도시로서의 정치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야 되었다. 그것이 최명희의 표현대로라면 꽃심을 지녔기 때문이며, 토론자의 표현대로라면 전주의 넉넉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전주의 넉넉함은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 자체가 위협이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이래 후백제와 풍수를 내세워 전주와 전라도를 인심이 사나운 곳으로 몰아붙였고, 이런 인식이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 지역패권주의에도 연계되었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넉넉함과 포용의 정신을 계승해 왔다. 그러기에 넉넉함의 전주정신이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넉넉한 도시 전주, 그것이 전주의 정신이 아닌가 한다. 전주라고 호칭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편안하고 좋은 곳이 전주라고 생각되며, 그 안에 전주정신이 있다고 생각된다. 21세기 전주가 이런 정신을 정립하고 계승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하며, 화해와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전주사람 같다’ ‘전주 것 같다’ ‘전주답다’ 는 등의 이미지가 무엇이고, 그 이미지에 담긴 전주정신이 무엇인지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전주정신의 근원은

이상균*

I. 들어가며

근래에 들어 지역학의 열기와 함께 지역에 있는 도시도 나름대로 색깔을 찾아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전북학이란 용어와 함께 전주학이란 명칭도 이제는 익숙해져가고 있고, 전주학의 큰 범주 내에서 전주정신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에도 “전주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술심포지움이 열렸으며, 오늘의 심포지움도 전주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주정신을 논할 때 조선왕조의 본향, 임진왜란시의 의병활동, 정여립 사건, 동학농민혁명, 한지와 출판, 판소리 등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오늘의 발제에서도 임진왜란의 구국항쟁, 동학혁명의 발원지, 대사습놀이 등 조선시대가 전주정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현재에도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고, 전주정신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에 전주정신과 관련된 이미지는 없는가. 또한 전주정신의 주체인 전주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가, 전주정신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소박한 의문들이 제기될 법도하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사시대 전주사람들의 흔적

1. 구석기시대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전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3만년 전의 후기구석기시

*전주대학교 교수

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송천동 와룡리 전주천변의 구룡사면에서 처음으로 후기구석기시대의 석핵, 굽개, 밀개, 톱니석기, 스페찌르개, 송곳 등의 다양한 석기가 채집되었고, 송천동 사근리 유적조사에서도 세석핵, 밀개, 격지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근래에는 삼천천이 바라다 보이는 효자동 봉곡 I 구역의 낮은 구릉에서도 스페찌르개, 굽개, 밀개, 격지 등 많은 양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전주에서 살았던 구석기인들은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낮은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었으며, 출토되는 유물의 성격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토되는 후기구석기의 유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신석기시대

전주에서 후기구석기인들이 신석기시대로 이행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신석기시대가 되면 전주에 일시 공백기가 있었으나, 4천년전을 전후한 신석기시대 후기 정도의 시기에 전주에 다시 신석기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근래에 이르러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의 구룡에 위치한 장동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수혈유구가 조사되었고, 서부신시가지 일환으로 조사된 효자동 4지구에서 주거지와 함께 빗살문양토기가 상당량 출토되기도 하였다. 유적의 규모나 출토된 유물로 보아 적은 인원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동기시대

전주에 영주하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한 시기는 청동기시대부터이다. 청동기인들은 삼천천과 전주천변의 넓은 옥토를 배후한 구룡지대에 취락을 이루며 생활하였다. 이 시기는 청동의 유입과 함께,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농경이 생산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다.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유적은 신석기시대에 소량으로 조사되었던 것과는 달리 취락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주거지는 효자택지 4지구에서 17기, 송천동2가 유적에서 16기가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도 성곡B, 여의동, 평화동에서 조사되어 넓은 범위에 이르고 있다. 전주 지역의 곳곳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농경생활을 영위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묘제는 토광묘, 지석묘, 석관묘 등이 존재한다. 토광묘는 여의동, 송천동, 완주 갈동, 상운리유적에서 확인되었고, 지석묘는 우아동, 호성동 봉암, 만성동, 여의동, 우아동, 원당동, 중인동 원중인, 완주 상운리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석관묘는 여의동유

적에서 조사되었으며, 석관묘는 송천동, 완주 상운리유적에서 조사되었다.

출토된 주요유물로는 효자택지 4지구에서 출토된 동검, 동경, 관옥 등이 있다. 전북지역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청동유물은 동경의 경우에는 익산 다송리, 평장리, 오금산, 전주 여의동, 장수 남양리유적이 있으며, 세형동검은 익산 오금산, 신동리, 평장리, 장수 남양리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4. 원삼국시대

철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남부지방에서는 삼한이 성립되었다. 그중에서도 전주지역은 마한에 속해 있으며, 고고학적으로는 원삼국시대에 해당된다. 마한은 목지국을 중심으로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북지역에는 10여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주지역은 이병도 선생에 의해 不斯瀆耶國으로 비정되고 있고, 전영래 선생은 爰池國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전주지역에서 마한과 관련한 유적 중 주거지가 66기나 출토된 취락유적이 존재한 송천동유적과 주거지 100여기와 분묘가 출토된 익산 사덕유적이 마한 소국 중 하나의 후보지가 될 수도 있다. 마한은 4세기 중후반에 멸망하나 완주 상운리나 익산 사덕유적에서는 5세기대 이후까지도 마한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마한의 주거지는 송천동유적에서 66기가 조사된 것을 비롯하여, 성곡B, 여의동, 평화동 등에서도 조사되었다. 주거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방형 내지 장방형이며, 4주식의 기둥에 벽구, 배수시설, 화덕자리, 칸막이시설 등이 있는 구조이다. 특히 송천동 9호주거지에서는 15개체분이 넘는 각종 토기가 군집된 상태로 출토되어 당시에 사용하는 토기의 종류 및 용도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4기의 주거지에서는 탄화미, 콩류의 곡물이 출토되어 당시의 식생활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송천동유적에서는 주거 이외에도 저장구덩이인 수혈유구, 토기공방, 토기가마, 고상가옥, 광장 등이 있는 대규모의 취락이 조사되었으며, 주거의 형태, 규모, 배치, 유물출토의 양상에서 마한의 생활과 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판단된다.

수혈유구는 송천동유적에서 23기, 평화동유적에서 26기가 조사되었으며, 이들 유구는 저장구덩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구상유구가 송천동유적에서 5기, 마전유적에서 6기가 조사되었다. 송천동유적에서는 토기가마와 공방이 조사되었으며, 평화동유적에서도 토기가마가 조사되었다. 묘제는 효자동유적에서 토광묘, 마전유적에서 3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5. 백제시대

삼국시대의 백제 주거유적은 마전유적에서 1기, 여매유적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백제의 묘제로는 횡혈식석실묘, 토광묘, 석곽묘, 화장묘 등이 있다. 횡혈식석실묘는 마전유적에서 3기, 효자 4지구에서 4기를 비롯하여 여의동, 덕진동, 평화동고분이 있다. 횡혈식석실묘는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시기와 구조에 있어서는 백제 후기의 석실분과 상통하고 있다. 횡구식석곽묘는 서곡, 평화동유적에서 조사되었으며, 횡혈식 석실묘가 등장하기 이전 단계의 묘제로 파악되고 있다. 이 외에도 토광묘는 봉곡유적에서, 석곽묘는 마전과 원당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원당리에서는 수혈식의 내부에서 광구호, 철검, 철부 등 5세기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화장묘는 중화산동의 산 정상에서 2기가 조사되었다. 사용된 뼈단지로 보아 6세기 중반으로 보인다. 수혈유구는 여매유적의 51기를 비롯하여 성곡B 11기, 평화동유적 등에서도 조사되었다. 군산 내흥동유적에서도 출토되어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Ⅲ. 마한에서 백제로 이행

고고학 조사의 성과에 따라 근래에는 마한의 지배자가 사용한 무기, 토기의 양식,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 등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금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마한 특별전에서도 그 위용과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취락유적과 분묘유적이 조사되면서 철제무기인 환두대도, 토기, 마구, 장신구 등 위세품에서부터 일상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마한과 관련된 주요 유적은 군산 관원리, 익산 읍촌리, 익산 영등동, 익산 사덕, 완주 상운리, 전주 송천동유적이 있으며, 이중에 전주와 연관된 유적은 송천동과 완주 상운리, 익산 사덕유적을 들 수 있다. 최몽룡 교수에 의하면 마한의 중심세력이 백제의 공주 천도 이후에는 익산 영등동, 전주 송천동, 남원 세전리, 정읍 신정동 일대로 이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한의 변천을 한성-익산-나주의 세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백제의 영향이 적게 미치는 시기의 마한세력은 백제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주에서 성장한 마한세력은 4세기경에 백제가 금강유역으로 남하하면서 점차로 백제에 편입되는데, 완주 상운리의 분구묘에서 출토된 부장품의 양상에서 보면, 마한에서 백제로 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익산 사덕유적에서도 4세

기 이후에 토착문화에 백제문화가 유입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완주 상운리유적은 소양천을 사이에 두고 전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전주 송천동유적과는 근거리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확인된 유구는 가-1지구에서 총 8기의 분구와 매장주체부(토광묘 43기, 옹관묘 17기)가 조사되었고, 그 외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와 지석묘 1기, 석관묘 1기, 삼국시대 와관묘 1기, 고려시대 횡구식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가-2지구에서는 4기의 분구가 확인되었고, 그 중 1호 분구묘에서 매장주체부(토광묘 6기, 옹관묘 수기)가 확인되고 있다. 그 외 수혈 유구 5기 및 굴립주 건물지의 주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총 45기가 있으며, 구릉의 북사면과 동남사면에서 청동기시대 및 원삼국시대 주거지군이 존재하고 있다. 나 지구에서는 분구가 확인되는 분구묘가 11기 확인되었고, 주위로 토광묘 42기, 옹관묘 14기가 조사되었다. 그 외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석곽묘 5기가 확인되었다. 마한의 분구묘는 충청, 전라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상운리의 분구묘는 수장급이라 할 수 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가 99점, 환두대도 및 대도 15점, 철정 11점, 철부 23점에 이르며, 옥류는 1,640여점에 달한다. 출토된 유물은 백제의 위세품과 토기, 마구류, 농공구류 등이 부장품으로 출토되어, 마한과 백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야구와 관련된 공구류가 많이 출토되어 철기생산과 관련된 집단이 묻힌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4세기 중반~5세기 말까지로 추정되며, 이는 4세기 중후반경 전북지역의 마한세력이 백제에 병합된 후에도 마한세력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향후 마한과 백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익산 사덕유적은 만경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익산에 속하지만 완주 상운리와 전주 송천동유적과 근거리에 접하고 있어, 마한유적의 비교자료로 주목되는 곳이다. 사덕유적에서는 100여기 이상의 주거지와 수혈이 조사되었고, 토기가마 4기, 분묘 31기가 조사되었다. 이 유적은 전주 송천동유적보다도 규모가 큰 대규모 복합취락유적으로, 조성시기는 4~7세기경으로 판단되고 있다.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시간적 전개과정에 따른 마한의 토착문화에 백제문화가 유입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분묘에 있어서는 완주 상운리와도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 마전 분구묘에서는 백제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고, 부장품도 백제토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세기 이후가 되면 전주 지역의 마한도 백제로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Ⅳ. 조선시대 이전의 전주정신은?

근래에 전주시가 추구하는 천년 전주의 의미는 전주가 한때 후백제의 도읍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전주시가 유구한 역사에 대하여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약 1000년전에 견훤이 내걸었던 정신은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그 정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에서 백제의 중심은 익산 금마에 있었으며, 백제의 멸망 후 신라는 보덕국을 세워 백제세력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신라 신문왕 5년(685)에는 새로운 9주 5소경의 지방편제로 전북의 중심도시가 전주와 남원으로 옮겨졌다. 견훤은 900년 무진주에서 전주로 진출하면서 국가체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의 국호, 백제왕의 칭호를 사용하며 위세를 떨쳤다. 三國史記 권 제50 열전 제10 견훤조에, 견훤은 고조선, 마한, 백제의 계승인식을 강하게 표명하였으며, 백제가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백제정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주에서 백제를 부흥시켜 의자왕의 원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후삼국 통일의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 이렇듯 전주 사람들은 신라의 압박에도 좌절하지 않고, 백제정신을 지켜내 후백제를 건국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후백제의 백제정신이 고려,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주가 한때는 후삼국통일 각축의 중심에 있으면서 지금의 전주정신 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백제정신을 정립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Ⅴ. 전주정신의 근원은?

상술하였듯이 통일신라 이후에 전북의 중심이 전주로 옮겨 왔지만, 전북에서의 백제의 중심은 금마지역이었다. 이러한 백제도 이른 시기에는 마한의 연맹체에 속해 있었으며, 마한의 영향 하에 성장하였다. 또한 견훤은 삼국사기에서 고조선, 마한, 백제의 계승인식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상에서는 백제로의 계승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고고학 자료에서는 고조선(청동기시대)에서 마한, 마한에서 백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완주 상운리유적의 분구묘에서 출토된 유물에서 보면, 5세기대까지도 마한의 문화가 지속되었고, 익산 사덕유적에서도 마한 세력의 문화가 백제에 문화에 흡수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전주에는 백제유적이 곳곳에서 조사되고 있고, 신

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될 때까지 전주에 백제시대의 집단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백제 시기에는 익산의 금마가 전북의 중심이었지만 백제 멸망 이후 그 중심세력은 금마에서 전주로 옮겨지게 된다. 백제정신의 한 축이 후백제 견훤과 관련이 있다면, 적어도 전주의 근원은 마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문헌상에 나타나는 마한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주 송천동유적은 마한 소국 중 한곳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오늘의 발제에서 장명수 총장께서 언급하신 상고시대의 홍익정신을 고조선(청동기시대)까지 올려본다면, 전주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고,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니만큼, 전주정신의 근원을 청동기시대까지 올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주 송천동 2가 유적에서 16기, 효자동 4지구에서 17기의 주거지가 있는 큰 규모의 청동기시대 취락이 존재하였고, 전주의 전역에서 묘제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전주에는 농경에 기반을 둔 청동기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철기의 유입과 함께 농경을 배경으로 점차 마한 소국의 일환으로 성장하여 갔다. 따라서 전주의 역사, 전주의 정신을 논할 때에 그 근원을 마한 시기는 물론, 청동기시대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음식과 소리, 그리고 한옥마을을 통해 본 전주정신

이종민*

I. 완전을 향한 정성 - 비빔밥 그 혼융(混融 혹은 渾融)의 미학(味學 혹은 美學)

전주는 ‘완전’을 꿈꾸어왔다. 옛 이름 ‘완산주’의 첫 글자와 현 이름의 첫 글자 모두가 온전함 혹은 완벽함을 뜻하며 그것을 모으면 ‘완전’이 된다. 애초에 도시를 만들어 나가면서 사방에 신령스러운 네 동물, 기린과 봉황, 용, 그리고 거북을 배치한 것에서도 이 꿈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선사시대만의 얘기가 아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도 이 도시의 동서남북에는 이를 굳게 지켜줄 절(固寺)이 자리를 하게 되며, 근래에 이르러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는 또다시 수호의 동, 서, 남, 북문 교회가 세워진다. 재난을 막아 ‘완전의 땅’으로 만들려는 기획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예들이다.

지금도 전주에서는 ‘완전’을 꿈꾼다. 판소리나 산조가 예술적 완벽성을 꾀하는 것도 전주에서의 일이다. 온전한 몸을 위하여 한방이 성하고 한지공예가 공예 이상을 꿈꾸며 비상하려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전통문화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도, 생태와 환경 그리고 삶의 질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대안적 삶, 공동체를 상실하면서 잃어버린 온전한 삶의 형태를 되살리려는 노력과 궂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 전형적인 예가 전주비빔밥이다.

비빔밥은 일종의 간편식이다. 궁중에서도 비빔은 점심 혹은 종친들이 입궐했을 때 수라 대신으로 이용했던 가벼운 식사였다. 농번기 농경문화의 산물이라는 주장에서도 이러한 특색은 확인되며, 군사문화나 사찰문화, 의례문화 등과 연계된 태생설도 이러한 조리의 편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비빔밥의 특징은 이러한 탄생의 배경과 멀리 떨어져 있다. ‘완전’을 꿈꾸

*전북대학교 교수,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위원장

는 전주에서는 비빔밥에서도 ‘대충’을 용납하지 못한다. 적어도 조리과정에서는 그렇다. 1968년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조사한 전주비빔밥 조리법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물이 아닌 사골국물에 밥을 짓는 것이나 밥이 한 물 넘으면 콩나물을 넣고 뜸을 들인 후 따듯할 때 참기름으로 무친다는 대목에서도 조리의 간편성과는 거리가 먼 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숙주나 미나리, 고사리 등도 나름의 특성을 살려 각기 따로 조리하며 색상까지 고려하여 노란 청포묵과 오방색의 화려한 고명을 고집하는 데서는 투철한 장인의식마저 느끼게 된다.

핵심은 정성이다. 철분이 풍부한 전주콩나물만 고집하는 등 조리재료의 선택에서도 ‘완전’을 향한 정성은 확인된다. 최근 들어 색깔별로 나물을 배치한 후 중앙에 빨간 고추장을 떠놓고 그 위를 계란 노른자로 장식하는 모습은 화룡점정(畫龍點睛)의 숙연함까지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전주비빔밥에는 ‘원래’가 없다. 어제가 오늘과 다르고 내일은 또 더 나은 재료, 더 나은 혼융을 통해 더 나은 맛과 멋을 추구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과 다르게 위생과 보온효과를 위해 늦그릇을 고집하게 된 데서도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는 확인된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세계미식대회에서 비중국요리부분 최고상을 전주비빔밥이 거머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완전’을 향한 정성의 비빔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여 정성이 생략된 산업화나 선부른 세계화는 이런 전주정신을 훼손하는 길로 피해가야 한다.

느린 성숙을 통해 ‘개미’를 얻게 되는 것갈과 같은 발효식품이 전주 음식상에 흔한 것도 이런 전주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II. 공동체적 한과 신명 - 판소리 그 에이불비(哀而不悲)의 미학

우리 민족 대표적 정서로 흔히 한(恨)을 꼽는다. 우리에게 새는 노래하지 않고 운다. 국민영화 [서편제]에서 유봉이 송화의 눈을 멀게 하는 것도 이 “체념해버린 슬픔 혹은 분노”를 체화시키기 위해서다. 이것 모르고는 소리예술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슬퍼도 비탄에 빠지지 않고 분노가 원한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예술적 승화가 가능하다. 적어도 살아남은 우리들 전통문화예술에는 이런 체념을 통한 극복이라는 잔잔하

지만 질긴 삶의 지혜, 그 미학의 징후가 진하게 남아 있다.

판이 절망이나 원한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이 된 판소리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오랜 공력의 삭임과 익힘 과정을 겪어야 도달할 수 있는 ‘시김새’, 이를 통해서만 펼쳐질 수 있는 “소리의 바탕에 깔려있는 오묘하면서도 융숭깊은 멋 혹은 여유”인 ‘그늘’, 여기에 판소리 미학의 핵심이 깃들어 있다.

판소리의 판은 말 그대로 어울림의 마당을 뜻한다. 예술행위의 장이기도 하지만 여럿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놀이의 터이기도 하다. 창자와 반주자로서 고수의 역할 못지않게 청자의 참여, 그 주입새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판이 함축하는 독특한 동참(同參)문화 때문이다.

판소리는 ‘창작’ 된 것이 아니라 ‘형성’ 되는 것이다. 한 예술가의 참담한 고뇌의 노력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 많은 판을 거듭하면서 여럿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리들 고유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놀이판의 어울림에 신명과 해학은 필수적이다. 간난신고의 현실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그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줄 힘을 늘이는 제공해주어야 한다. 판소리에서 가난은 그래서 비참하지 않다. 놀부의 심술도 해학적이며 옥중 춘향의 형상은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그려지기까지 한다. 놀이의 신명을 통해 현실의 고난을 해소하려는 삶의 철학이 미학적으로 승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전통예술이 홀대받으면서 이런 한과 신명의 정서들도 변질되고 만다. 한의 미학은 원한의 폭력으로, 신명의 멋은 엽기적 퇴폐와 선정으로 타락해 버린다. 폭력시위, 무한대결의 정치, 선정적 누리꾼, 퇴폐적 성문화, 한 맺힌 입시문화, 이들 모두 이 한과 신명의 미학을 상실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된 독버섯들이다.

뒤늦게 전통문화를 내세우며 잃어버린 공동체를 운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우리의 전통문화는 분명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콘텐츠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독특함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가 이를 홀대하면서 상실해버린 우리 고유의 삶의 지혜, 그 공동체적 삶의 멋과 여유를 되찾자는데 있다 하겠다.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려는 전주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었으며 그런 것이어야 한다.

Ⅲ. 기개와 기품 - 여유 속에 무르익는 전통문화의 텃밭 전주한옥마을

그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천년이 넘는 ‘완전의 땅’ 전주의 역사와 기운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그곳에서는 다시 천년의 전통으로 이어질 문화와 예술이 매우 느리게 무르익고 있다. 하여 몸과 마음의 걸음이 바빠서는 그 오묘한 정취를 놓치기 십상이다. 낮은 하늘선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주는 여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만 그곳에 녹아있는 기개의 역사와 기품 있는 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평온해 보이는 이 기와집 마을, 이곳의 형성과정에서도 전주인들의 기개는 확인할 수 있다. 옛 전주부성 남동쪽에 자리한 이곳은 20세기 초 성내를 점유해오는 일본인들의 ‘꼴’이 보기 싫어 성 밖 가까운 곳에 ‘우리들만의 터’를 잡는다고 기와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6,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내로라하는 부자들이 모여 살았으니 전주의 문화 예술은 이곳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곳이라고 풍운의 역사가 없었을까? 이승만 전대통령의 “보기 좋다!”는 말 한마디에 영광의(?) 개발금지구역이 된 이곳은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주거문화에 밀려 졸지에 ‘전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슬럼가로 전락하고 만다. 그 덕에 ‘새마을운동’ 식의 서구화 파고를 피해갈 수 있었고 다시 그 덕으로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통문화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으니, 이 짧은 기간동안에 겪은 술한 역사의 반전, 그 아이러니의 묘미를 생각하면 ‘천천히!’는 당연한 화두였을 것이다.

이곳을 둘러싼 예사롭지 않은 품세도 여유와 기품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 마을 남쪽으로는 이 지역의 중요한 젓줄 전주천이 흐른다. 지금은 쉬리가 살 정도로 깨끗한 도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등 이 고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술한 역사적 사건을 지켜본 입 무거운 증인이기도 하다.

그 동편에는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바람의 언덕’이 있다. 한때 청소년들 ‘비행’의 우범지역이기도 했던 이곳에도 이성계와 정몽주, 이완용과 전동성당에 관련된 역사가 묻혀있다. 전주 이씨가 발흥했다는 발이산(發李山) 끝자락인 이 동산은 그 기운을 차단하고 싶은 일제에 의해 전라선 철도의 명분으로 대강, 본류와 끊기는 설움을 겪기도 했다. 오동나무가 있어 오목대라 불리는 이곳은 오얏나무가 있었다는 이목대와 남원행 도로에 차단되어 서로 다른 바람을 맞고 있다.

그 뒤가 중바위(僧岩山). 그 깊고 너른 골짜기에는 ‘문화강국’을 꿈꾸었던 후백제 건

환의 한이 서려있다. 그 빗겨 너머에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 순교자를 모신 치명자성당이 있고 그 서쪽 사면에 전주를 동쪽에서 굳게 지켜주고 있는 동고사(東固寺)가 자리하고 있다. 그 아래에 전주팔경의 하나인 한벽청연(寒碧淸煙)을 자랑하는 한벽루가 있다.

그 곁에는 지금도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릴 듯한 전주향교가 교육입국의 꿈을 북돋아주려는 듯 단아하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으로 찾는 이들을 반긴다. 특히 이곳에는 대성전, 명륜당 말고 성인들의 아버지를 모신 계성전(啓聖殿)이 있어 다른 향교와는 사뭇 다른 규모와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한옥마을 서쪽은 옛 전주부성자리로 이어진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 그 의젓하고 웅장한 기품에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곳. 그 곁에는 술한 병화 속에서 역사를 지켜낸 전주인들의 기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주사가 있어 후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마저 불타버렸다면 조선전기의 방대한 역사는 암흑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동양문화를 상징하는 경기전 맞은편에는 서양문화를 대변해주는 전동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포근하면서도 화려한,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풍이 가미된 이 건물은 치명(致命)의 숭고함을 웅변하면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처럼 풍성한 역사로 둘러싸여있는 전주한옥마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속촌과 같은 박제의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점이다. 골목골목마다 애환의 한숨과 웃음소리가 낮은 돌담 넘어 가득하다. 그 중간 중간에 우리 전통문화를 갈고닦는 장인들의 땀 냄새가 배어있다. 명창부부가 명창아들과 더불어 소리공부에 여념이 없는 소리청이 있고 천년한지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뚝심과 이를 공예로 꽃피우기 위해 손 닳는 줄 모르는 열정이 있어 찾는 이의 넋과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

나무냄새 벗 삼아 목각에 여념이 없는 이도 있고 차의 향취에 취해 거의 신도가 되어버린 이도 이 정겨운 한옥마을에는 하나 둘이 아니다. 시간을 저당 잡히지 않고는 도저히 이곳의 정취를 그 겹치레나마 느낄 수 없다. 그러니 전통문화에 취한 몸을 구들 따스한 한옥에 누일 일이다. 다도와 전통예절 체험을 겸할 수 있는 숙소가 있으며, 마당이 좋아 거의 매일저녁 작은 음악회로 투숙객을 잠 못 들게 하는 참으로 근사한 한옥도 있다. 대청마루의 위용을 실감할 수 있는 당당한 기와집도 있어 세월에 지친 우리들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녹여준다.

새벽이면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걸으며 그 오밀조밀 다정한 맛을 필히 느껴볼 일이다.

그래도 찌뿌둥하면 사상의학으로 웰빙을 꿈꾸는 한방문화센터를 찾을 일이지요, 조금 가뿐해진 마음으로 최명희문학관이나 강암서예관을 둘러보는 것도 ‘강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삶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곳에는 각종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전주백반, 오묘한 비빔의 조화로 세계가 주목하는 웰빙의 전주비빔밥, 애주가들의 속을 달래주는 콩나물국밥, 바람 시원한 한벽루의 오모가리, 옛 향수를 자극하는 칼국수, 그리고 막 땅기는 막걸리와 싸고 풍성한 가맥 등도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 마을 곳곳에서 우리들 미각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마을은 미완의 터다. 완전을 꿈꾸며 느리게 무르익어갈 뿐이다. 급하게 구경이나 하려는 사람 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줍은 새색시 같아 진정어린 마음가짐이 없는 이에게는 그 장한 끼를 보여주지 않는다. 귀를 열고 추임새라도 보태려는 마음, 차의 더딘 향에 취할 수 있는 여유, 손수 비빔밥을 만들고 한지로 손거울이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있어야 그 은밀한 매력을 나눠가질 수 있다. 말하자면 ‘준비된’ 사람들, 즉 기개와 기품의 전주정신을 갖춘 이들만을 위한 공간인 것이다.

理想세계,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정신

이태영*

I. 선비의 儒學, 節義 정신 - 무성서원과 가사문학

판매를 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간행한 책을 방각본(坊刻本)이라고 하는데 이 방각본의 원류는 서울에서 선조 9년(1576년)에 간행된 ‘고사촬요(攷事撮要)’로 알려져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완산에서 ‘童蒙先習’(1654년)을, 孫基祖가 1664년 정읍 태인현에서 목판본인 ‘명심보감초(明心寶鑑抄)’를 방각본으로 만들어 팔았다.

그 뒤에 민간 출판업자인 ‘전이채(田以采), 박치유(朴致維)’가 ‘사요취선(史要聚選, 1679), 사문유취(事文類聚, 1679), 신간소왕사기(新刊素王事紀, 1684), 공자가어(孔子家語, 1804), 농가집성(農家集成, 1686),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 1686),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 1803), 동자습(童子習), 공자통기(孔子通紀), 대명률시(大明律詩, 1680), 증산염락풍아(增刪濂洛風雅, 1676), 효경대의(孝經大義, 1803), 효경언해(孝經諺解, 1803)’ 등 판매용 책을 정읍 태인현에서 19세기 초기까지 간행하였다. 이 책들은 당시 문인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실용적인 책들로, 수요자인 문인들의 요구에 따라 출판한 것이다.

태인(泰仁)은 태산(泰山)현과 인의(仁義)현이 합쳐서 생긴 지명으로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 많이 거주하고 상업이 활발하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상업적인 출판도 활발하였으며, 특히 17세기에는 방각본 출판을 주도하였다. 태인의 방각본은 지방의 상업적 출판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책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큰 역할을 했다.

당시의 태인은 현감이 있었던 큰 도시였고, 최치원을 모신 무성서원(武城書院)이 있을 만큼 유학자들이 많이 기거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그 지역에서 지식 탐구열이 높게 되었고 교육용 도서가 많이 발간되게 된 것이다.

전북 전주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까지 방각본의 최고 출판지였다. 공교롭게도 태인 방각본의 출판을 끝나는 1803년부터 전주에서 방각본 판매가 일반화되는 것은 전주와 태인의 출판 문화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북대학교 교수

한편, 新羅의 포석정에 비견되는 태인의 유상대(流觴臺)에서 노닐던 태산군수 최고운 선생, 그 후 선생의 학덕과 풍류를 이어받아 학문을 닦으며 道를 펼치며 풍류를 즐긴 태인 선비들은 유학적 안빈낙도의 풍류정신과 節義精神이 강했다.

우리나라 국문가사의 효시로서 봄에 들판을 산책하면서 지은 <상춘곡>으로부터 ‘옛 사람 풍류’ (최고운 선생의 풍류)와 정극인 선생의 풍류를 볼 수 있다. 태인의 피향정(被香亭)과 관련된 태인 문인, 그리고 태인 문인과 교유한 많은 시인묵객들은 선비들의 풍류 문화와 그 정신을 즐겼다. 면앙정 송순, 점필재 김종직을 비롯한 당대 명문장가들은 태인에 머물면서 지역 문화 유적에 대한 감상을 노래한 詩文들을 남기곤 하였다.

임진·정유의 왜란 당시의 창의, 구한말 항일 병오倡義에 태인 지역 선비와 주민들이 대거 나섰다. 김천일, 변사정, 김제민, 안의, 손홍록과 김후진, 기효간, 신개, 이수일 등 많은 사람들이 倡義하였다. 최익현 선생과 임병찬 장군은 병오창의를 통해서 구한말 항일투쟁을 전개하면서 강한 선비들의 節義精神을 남겼다.

II. 근대 시민 의식의 발흥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책은 한 시대의 思想과 정신의 산물로서 앞 세대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였다. 책에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업적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책을 통하여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서울에 견줄 만큼 지방에서 인쇄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였다. 그 이유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각수와 인쇄시설이 발달하고, 품질 좋은 한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였으며, 구비설화와 같은 이야기 문화, 판소리와 같은 음악 문화, 남문시장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잘 발달하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완판본(完板本)은 서울에서 발간된 경판본 고전소설에 대비된 말로, 전주(全州)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목판으로 발간한 고전소설을 일컫는 말이었다. ‘완판 방각본(完板 坊刻本)’이란 용어는 ‘판매를 목적으로 전주에서 찍은 옛 책’을 말하는 것이다.

한지의 발달로 말미암아, 조선 초기에 약 60여 권, 조선 중기에 전라감영에서 60여권의 책이 발간되었고, 조선 후기에 50여 종류의 한글 고대소설과 250여 종류의 판매용 고문헌이 개인 출판업자에 의하여 발간되어 전국적으로 판매되었다.

일찍이 지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가 강했던 전주 시민들은 사대부를 중심으로 정치와 교

육용 책을 출판하였고, 서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책과 교육용 책, 그리고 생활백과용 책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이러한 놀라운 문화 의식은 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우리 선조들의 지적 의식이 매우 앞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민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개화 의식은 매우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 해방, 신분 철폐 등과 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전주 지역 사람들이 많은 책을 통하여 배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정신은 동학, 실학 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각본의 출현은 근대 시민사회로 가는 방향에 촉진제가 되었다. 판매용 책이 일반인을 위한 책이고 더욱이 한글고전소설의 경우 소시민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책까지 겸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은 다분히 민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Ⅲ. 상상력의 세계관 - 판소리, 소설문학, 시문학의 발달

판소리는 삼백 년 이상 전승되어 오면서 ‘판’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삶’에 끊임없이 관여해 왔다. 판소리는 일반적으로 전라도 지방에서 생겨났고 자라났다. 전라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노래들 중에서, 조선 후기에 발생한 판소리는 아직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규모도 가장 크고 수준도 높다. 판소리는 그 자체가 음악·문학·연극적 요소가 다 들어있는 고도의 복합성을 지닌 예술이다.

판소리가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크게 대두하기 시작할 때 발생, 서사무가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판소리 창자가 전라도 단골무가(丹骨巫家)에서 나왔다. 판소리계 완판본 고소설이 전주 지방에서 주로 간행되어서 호남 지방의 농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농민 계층으로 보급되었다는 사실은 판소리가 서민 문학의 집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판소리에 담고 있는 양반 사회의 풍자와 비판에서도 나타난다.

판소리는 한의 문학이라고도 하고 종합 예술이라고도 한다. 소설로 발전한 것으로 보면 분명히 문학이요, 여전히 노래로 불려지는 걸 보면 음악이며, 창자가 청자와 더불어 공연하는 걸 보면 연극이다. 세계문화유산 걸작으로 등록된 이 판소리는 당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한 문학적 상상력을 제공해 주었다. 울고 웃기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면 시름을 잊게

해주던 예술작품인 것이다.

이 판소리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로 이어져 24종의 고전작품을 발간하는 계기가 되었다. 완판 방각본 소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은 1725년 나주에서, 1803년에 전주에서 간행한 한문본 고소설인 <구운몽>이다.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최고본은 ‘별월봉괴(하권, 48장본)’으로 1823년 4월에 전주시 평화동 석구동(石龜谷)에서 발간되었다.

현존하는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종류는 24가지이다. 이 가운데 판소리계 소설이 춘향전, 심청가, 심청전, 화룡도, 토별가 5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웅소설이다. 판본이 다른 종류를 합치면 약 50여 종류가 된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전주에서만 한글 고대소설이 발간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글도 된 이야기책이 발간된 사실은 당시의 전주 시민의 출판 문화 의식과 개화 의식, 시민 의식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남원은 동편제로 대표되는 판소리의 고장이며, 남원을 배경으로 한 소설 ‘춘향전’은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는 소설로 알려져 있고, 이미 1850년 무렵 한글 책으로 만들어져 약 150여 년간 읽혀지고 있는 불후의 명작이다. 남원은 민족의 대하 민속 소설이라 일컬어지는 <혼불>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남원은 <만복사저포기>의 고향이다. 매월당 김시습이 지은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수록된 5편 중 하나이다. 한 마디로 전북은 한국 소설문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후 전북 지역은 수 많은 걸출한 소설가와 시인을 배출하게 된다. 풍자문학의 대가 백룡 채만식은 옥구 출신이고, <혼불>의 작가 최명희는 전주, 시대 정신을 풍자한 정읍 출신의 윤홍길, 수채화 같은 소설을 쓰는 정읍 출신의 신경숙 등의 소설가와 시인인 부안의 신석정, 고창의 서정주, 전주의 김해강 등이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소설과 시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주는 여러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문학적 감수성이 발달한 것은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상상력의 세계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회구하는 강한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내세(來世)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전북의 천주교는 이미 신유박해를 통하여 수많은 순교자를 낳게 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죄없는 백성을 죽이려 하자 신자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다. 유항검, 유중철, 이순이 등은 전주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로 그들은 내세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현세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

불교의 경우도 완주군 구이면 광곡에 고구려 ‘보덕화상’이 ‘경복사지’를 세우고 열반종을 펴뜨린 곳이다. 기독교의 경우에도 미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치료도 하면서 신앙을 전파한 지역이다. 특히 원불교는 전라도가 탄생 지역으로 원불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화기 시대 신흥종교가 무성한 곳이었는데, 증산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 3대 신앙은 물론, 이 땅을 배경으로 탄생한 종교가 있고, 여러 신흥종교가 발달한 지역이다. 이 땅에 ‘내세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은 곳이 전주 지역이다.

V. 결론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은 일찍이 선비문화가 꽃핀 곳이어서, 선비들이 모여 시를 나누고 글을 쓰며, 시서화를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유학적 풍류정신을 키우고,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한 절의정신을 함양한 곳이다.

인쇄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판매용 책이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판매된 곳이다. 이는 일반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대중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대중들은 지식을 쌓고, 정신을 배우며, 자각하게 되는 과정을 일찍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시민 의식의 발흥으로 이어진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판소리라는 공연 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대소설의 발달, 이야기를 손으로 직접 옮기는 다양한 필사작업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상상력의 세계를 풍부히 갖게 되었다. 이후 현대문학에서도 이 영향력은 그대로 이어져 걸출한 수많은 작가를 배출한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은 종교와 신앙의 입장에서조차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였고,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

킨 지역이다. 이는 이 지역민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주로 출판 문화와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인은 지식으로부터 나아가 초자아를 꿈꾸었고, 소시민들은 책을 통하여 개화하여 자각하는 새로움을 맛보았으며, 문학을 통하여 끝없는 상상력을 키워왔고, 신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고 구원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추구하는 정신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 체험·교육도시 전주

조법중*

I. 전주의 역사문화적 성격

1. 완전(完全)의 땅 전주(全州) : 완산(完山) + 전주(全州) = 완전(完全)

- 전주는 백제(B.C.18-660년)시대의 완산(完山)이란 명칭이 삼국이 통일된 이후 757년 전주(全州)로 명칭이 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완산과 전주라는 명칭은 완(完),전(全)이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로우며, 재연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이다.
- 전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도시, 전통문화도시, 예술의 도시, 학문의 도시, 건강의 도시 등으로 명성 높다.
- 전주음식, 전주 한옥마을, 전주 약령시가 이 같은 문화를 반영

2. 왕도(王都)의 땅 전주(全州) : 후백제왕도 + 조선왕조관향 + 전라감영

-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900-936)로서 전라도지역에서 유일하게 왕도를 경험한 도시임
- 전주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발상지(發祥地)로서 특히, 조선시대 가장 부유한 경제력과 문화를 꽃 피운 도시임
- 전주는 근대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한 1894년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근대 개혁운동의 중심지
- 전주의 예술문화, 학문적 전통 등 최고의 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된 도시

3. 기록(記錄)문화(文化)의 땅 전주 :

후백제서적 + 고려목판 + 조선왕조실록 + 완판본 = 전통지식문화 창조·계승 도시

- 한국 최대의 서적 보유도시

*우석대학교 교수

- 한국최대의 출판인쇄도시
- 조선왕조실록 보존의 역사수호도시
- 한국 최대 상업출판문화도시
- 전주한지 및 출판인쇄문화전통의 역사 보유

II. 전주의 공간문화적 전통

1. 후백제 역사공간 : 전통시대 왕조공간 - 왕권(王權)공간

- 후백제 왕도유적 : 견훤고성유적이 현재 동고산성 일대 15군데 건축유적 및 산성유적으로 존재
- 전통도시 수호관념유적 : 사령·사고사찰 등 전주를 수호하는 사령(거북바위·기린봉·용머리고개·봉황암)과 사고사찰(동고사·서고사·남고사·진북사)유적

2. 조선왕조 : 전통 지방정부 행정공간유적 - 신권(臣權)공간

- 행정통치공간 : 전라감영, 객사
- 읍성유적 : 풍남문, 성곽길
- 의례공간 : 경기전, 조경묘, 충경사
- 교육공간 : 향교
- 군사공간 : 남고산성

3. 전통생활공간 : 전통시대 백성의 생활공간 - 민권(民權)공간

- 한옥마을 : 한국유일의 도심한옥공간

4. 종교문화공간

- 동학농민운동유적
- 천주교 성지유적
- 기독교유적

Ⅲ. 전주의 전통문화교육역량

1. 풍부한 역사문화적 전통문화자원

2. 전국 최대규모 전통생활문화공간 : 한옥마을

3. 다양한 전통예술문화공간

- 한스타일로 상징되는 한옥·한지·한식·한글·한국음악·한복·한방·한춤 등 한국의 대표적 생활, 예술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량 확대

Ⅳ. 전주의 전통문화체험교육의 확대

1. 체험교육의 확대 : 교육시설확충

- 현재 한국의 의식주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예술문화 등 이론중심 강의진행
- 한국의 정신문화와 여가문화로의 확대 추진
- 다양한 체험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및 지원필요

2. 체험대상의 확대 : 교육제도정비

- 현재 전주, 전라북도 유학생중심교육
- 향후 타시도 유학생, 한국주재 외국인등 으로 교육영역 및 대상 확대필요
- 국내취업 외국인 강사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체계 마련
 - 한국의 문화와 정서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참여 의무화
 - 문화관광부의 제도적 지원 요망
- 초·중·고등학생의 지역문화 및 전통문화이해 현장교육으로의 확대
 -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의 적극적 지원 요망

3. 해외동포 전통문화교육기지화

- 6백만 해외동포에게 민족의식 및 한국의 얼을 심어주는 전통문화 체험교육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여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교육실행

4. 다문화가정의 한국문화체험교육

5. 한국전통문화의 재생산·재창조 및 소비도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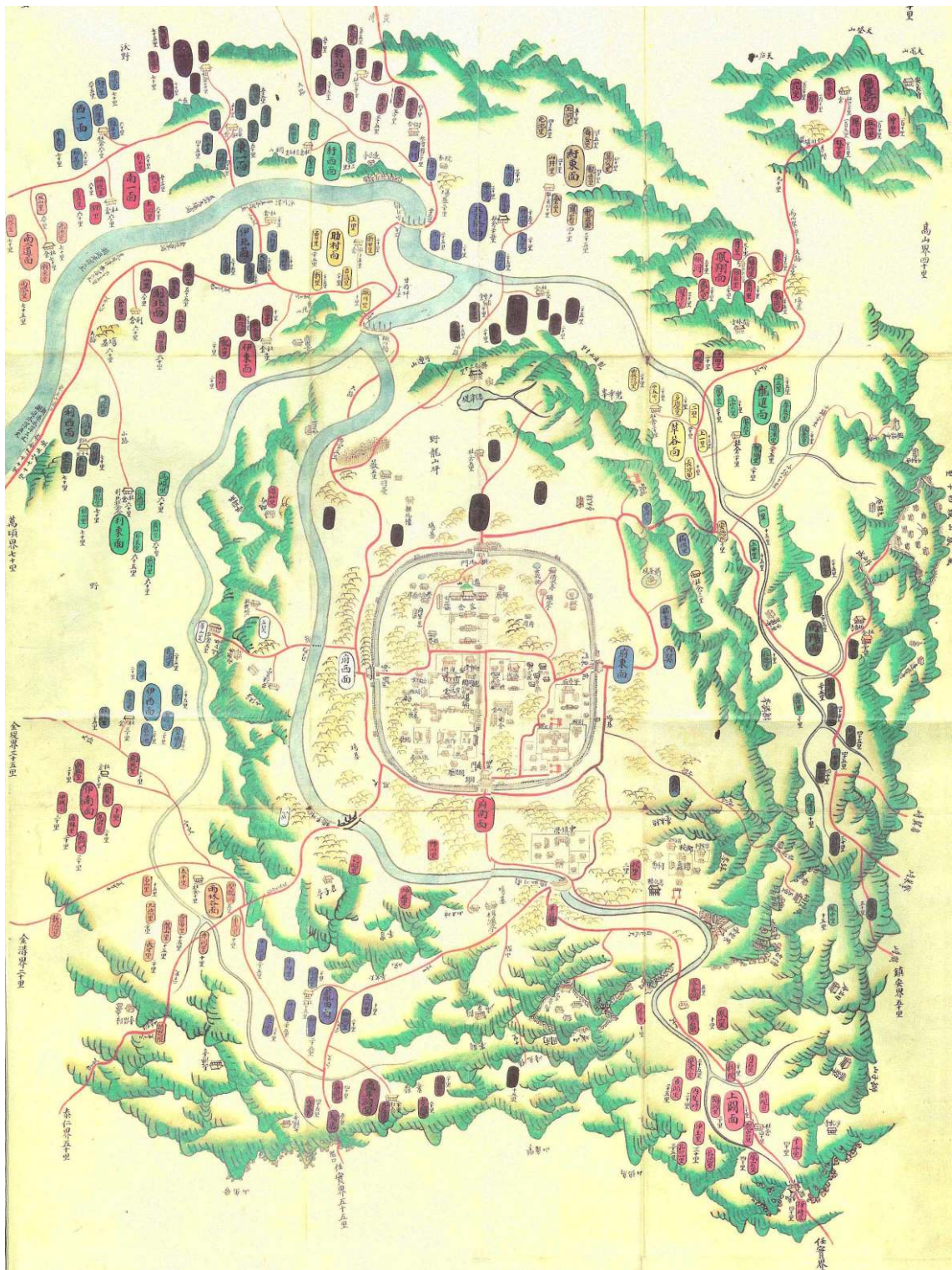
V. 전주 전통 역사문화공간의 회복

1. 후백제 역사공간의 회복

- 전주성(승암산) 후백제 산성유적 정비 및 복원
- 성황사 복원

2. 조선역사공간의 회복

- 전라감영복원 :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지향
 - 복원공간을 ‘전주역사박물관’, 전주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
- 전주 4대문 및 성벽 일부 복원, 나머지 구간 성벽상징물 도로위에 표시
 - 상징성이 강한 성문 복원 및 경기전 담 성벽 복원 추진
 - 복원이 어려운 지역 성문 상징물 도로바닥에 조성
- 오목대와 발이산의 단절공간 회복
- 한벽당앞 다리 이전 중장기 계획 수립 이전



[그림] 전주의 역사문화공간